JUN 1 3 1983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55~1156 1983년 6월10일(금) & 11일(토) 102F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June 10 & 11,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김영삼씨, 23일만에 단식중단

살아서끝까지 싸우겠다

성명발표, "완전한 민주주의 촉구"

(서울 9일=로이터·AP 종합) 김영삼씨는 9일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23일간의 단식을 끝낸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이날 성명을 발표, "나는 수치스럽게 살기 위해 단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누워 죽기 보다는 두발로 서서 싸우다 죽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신의 단식투쟁을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불러올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생사를 건 투쟁을 두려워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언론은 자신의 단식과 오랜기간의 자택연금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투쟁에 관해 알고 있으며 도덕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보좌관들은 김씨가 수일간 더 서울대학병원에 머물러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이나 어떤 외국으로도 떠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8일밤 30여명의 지지자들이 그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로 들어와 단식을 중지하고 정치개혁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수환추기경과 윤보선 전대통령, 미국·일본등지의 친지·지지자들로부터 단식중지 호소를 받았다.

김씨가 전대통령의 장기군사독재계획을 비난하고 대통령직선제의 헌법, 수감된 재야인사 석방, 언론자유보장등을 요구, 단식에 들어가자 대부분 전 신민당의원들인 1백여명의 야당인사들은 김씨 요구를 지지, 「민주국가를 위한 연합국민전선」을 결성했었다.

지난주에는 1천여명의 연대생들이 김영삼씨의 생명을 구하라고 외치며 반정부시위를 벌인 후 학생3명이 제적됐다.

한편 김씨의 단식투쟁 종식성명이 발표된지 두시간 뒤인 9일정오부터 한국의 신문·방송들은 그의 단식 종식을 짤막하게 보도했다.

국내언론은 김씨가 지난 6월3일부터 정맥주사를 맞아온 것과 그가 정부의 정치활동규제중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단식투쟁 전적 지지

김대중씨 뉴욕타임즈에 기고

김대중씨는 9일자 뉴욕·타임즈지에 보낸 기고에서 김영삼 전 신민당 당수의 단식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단식은 한국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씨가 단식 이유를 밝힌 성명을 인용, 죄없는 죄수의 석방, 정치활동을 억제당한 사람들에 인권의 자유부여, 언론자유회복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김영삼씨는 미국정부의 서울 독재정권지지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으며 그의 투쟁은 "정치활동제한법"이 발표된 이후 첫번째의 "정치적 대결"이라고 피력했다.

김씨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자유화를 다시 확인할 시기라고 말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한 한국의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타임誌서 한인사회 惡評

"美國化 멀었다"

"英語배우려않고 意思표현 능력없어"

LA의 각 이민커뮤니티 소개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LA에 정착한 각 이민컴뮤니티에 대한 특집을 6월13일자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한국계 이민사회등을 소개했다.

「뉴앨리스 아일랜드」란 제목으로 7페이지에 걸쳐 특집을 게재한 타임지는 LA가 미국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국의 이민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도가니」를 이루었다고 표현하고 그 실태를 보도했다.

이 특집기사는 각 이민집단이 저마다 규모면에서 성장하고있지만 언어문제등 아직도 미국사회에 융화되기에는 제약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한국계는 1970년에 그 수가 8천9백명에 불과했으나 1983년 현재 16배가 늘어난 1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UCLA사회학자 해리·키타노씨는 『한국인들은 머리속에 든것이 없으며 영어를 배우려하지않고, 음식은 냄새가 나며,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고 한국컴뮤니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평했다.

「타임」지는 또 이민3, 4세대를 맞고있는 일본계는 거의 언어문제가 없으며 일본인들은 다른 동양계이민들들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있고 일본인은 한국인을 깔보고 한국인은 흑인과 히스패닉을 업신여긴다고 보도했다.

새 주택가격

4월중 약간 인상

(오타와) 캐나다 전체의 새 주택 가격이 4월중 한달동안 약간 올랐다고 캐나다통계국이 발표했다.

4월 중 새 주택 가격지수는 129.8로 3월의 129.6보다 0.2 올랐다.

주택가격지수는 주택건설비와 대지가격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오메가시계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재소지업체
45% ~ 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타임지가 6월13일자 커버스토리로 소개한 LA 이민코뮤니티 중 한국교민사회의 모습들. 왼쪽위로 부터 이 철 LA 한국일보편집장, 학교운동회에 나온 교민어린이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각 민족이 섞여 사는 LA의 거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간판들. 한일관, 최상봉계리사무소 등 간판도 보인다.

이자율 더 안내린다

금년 하반기부터 인상추세

이자율이 금년안에는 더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금융전문가들이 전망했다.

9일 글로브·앤드·메일지는 경제면 톱기사에서 캐나다금리는 금년도 하반기에 조금씩 인상추세를 보여 84년도 상반기에는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한 이 신문은 북미, 특히 미국의 경제가 기대이상으로 빠른 회복을 보여 금리인하중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금리는 4주째 조금씩 반전, 9.53%를 기록했다. 이같은 인상은 금리안정을 위해 미국연방중앙은행(Federal Reserve Board)이 풀어놓은 보유고가 기대이상으로 급작한 금리안정을 초래하자 미당국이 보유고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것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과연 이자율은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토론토 소재의 투자회사인 우드·군디회사의 아이린·입씨는 금년말 중앙은행의 이자율이 11.5%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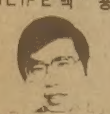
그는 "미국 경제가 의외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많은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의 장기채권의 이자율은 금년 9월말까지는 11.75%, 내년초에는 12%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미니언 증권회사의 앵구스·스마트씨에 의하면 84년 초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84년은 미국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그에 맞추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또 다른 경제자극요인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의 경우는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단기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체는 이자율이 극적으로 떨어질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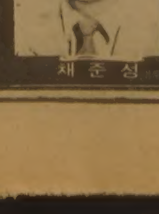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 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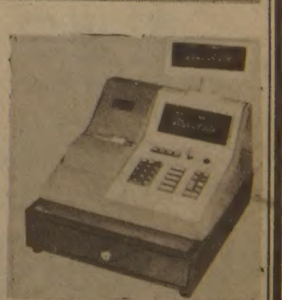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illegible]
*이민이나 [illegible] 을 위한 투자안내.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약 력
[illegible]
채준성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 수 일
252-7377 (R)762-4536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해외교포 印鑑증명발급 규제

政府, 부동산 미등기전매행위 막기위해

한국정부는 부동산미등기전매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키 위해 해외교포들의 인감증명발급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2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5월10일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매도용의 인감증명발급신청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감증명발급위임자나 법정대리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할때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동산주소및 지번까지 기입해야만 발급된다고 LA총영사관 당국자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해외공관에서의 부동산관련 인감증명발급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없이도 발급되어왔다.

이번조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감증명발급 신청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3일은 대니·케이의 날

토론토시 UNICEF공헌 인정

토론토시는 오는 6월23일(목)을 대니케이의 날(Danny Kaye Day)로 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트·이글턴시장이 13일 정식공표할 대니·케이의 날 제정은 세계적인 연예인으로 과거 30년이상 국제아동기금(UNICEF)을 위한 친선사절로서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결정했다.

기념식에는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대니케이씨에게 알리고 축하하며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그의 쾌유를 기원할 예정이다.

UNICEF 캐나다는 23일 기금모금을 위한 점심을 로얄·욕호텔에서 가지며 대니케이씨가 방문한 32개국의 대표가 참가한다.

대니케이씨는 바쁜 틈에도 세계어린이를 위한 자선공연에는 빠지지 않았으며 세계를 방문,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그는 장·허쉴트 박애상과 아카데미 특별상, 국제연합 평화메달등을 수상한 연예인이다.

UNICEF는 1946년 세계어린이 긴급구호를 위한 목표로 설립되어 1950년 이래 각종활동을 벌여왔다.

퀘백주 언어법 완화원해

몬트리얼시민 여론조사 결과

(몬트리얼) 불어통용 몬트리얼시민들은 퀘벡주의 언어법에 대한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8일 퀘벡정부 연방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언어위원회가 밝힌 이 조사에 의하면 619명을 대상으로한 응답자중의 85%는 퀘벡주의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영어사용자들이 퀘벡주로 이사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을 영어사용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한다고 대답했으며, 91%의 불어사용자들이 영어사용학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 86%가 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이중언어로 광고표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33-2361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51>

누가 惡魔인가 ⑫

마인, 납작코에 "너희들은 이제 끝장..."

납작코는 표독스런 눈초리로 그를 쏘아 보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침 떼지 마! 다 알고있어! 너희들은 오늘 제5의사나이를 만나 물건을 인수받으려고 했어. 헤로인을 말이야. 그런데 일이 틀어진 거야. 우리는 너희들을 쭉 미행해왔어. 전화도 도청했다구. 그래도 모른다고 시침뗄텐가?』

『……』

화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제5의사나이가 누구야?』

마인은 상대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찼다. 납작코는 허리를 구부렸다가 얼굴을 찡그리고 일어섰다.

『헤로인 6kg을 찾으려고 너희들이 혈안이 돼 있다는거 다알고있어. 6kg면 싯가로 2천만달러,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1백40억원에 해당되는 물건이지. 그렇게 엄청난값이 나가니까 트라이앵글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다니는 거겠지. 너희들은 트라이앵글 한국지부공작원들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제 끝장난 셈이야. 물건을 찾기는 커녕 한국경찰에 모두 체포됐으니 볼장 다 본 셈이지. 그렇게 생각지 않나?』

마인은 손가락끝으로 상대방의 턱을 치켜올렸다. 중국인은 모욕과 증오가 엉킨 표정으로 그를 노려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는 사실을 피할 수 [illegible] 느낀 것 같았다.

『자, [illegible]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 이야기 하자구.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으려면 우리한테 순순히 협조하는 길 밖에 없어. 제5의 사나이가 누구지?』

『국제 킬러입니다.』

다른 중국인이 보다 못해 대신 대답했다. 납작코는 사나운 눈초리로 부하를 흘겨보았다.

『이름은? 당신이 대답해.』

마형사는 납작코를 손끝으로 놓렸다.

『이름은 우리도 모릅니다.』

朴男 그림

그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왜 이름을 모른다는 거야?』

『암호명 제5의 사나이가 갈거라는 연락만 받았기 때문에 이름은 모릅니다. 그가 유명한 국제 킬러라는것 정도만 알고 있읍니다.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이상 아는 게 없읍니다.』

『그의 입국 목적은?』

『……』

『내가 말해 볼까? 너희들은 헤로인 6kg을 한국에서 분실했어. 운반책들이 먹어 치운 거지. 본부에서는 너희들에게 물건을 빨리 찾아내라고 독촉이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너희들은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어. 본부에서는 생각끝에 [illegible] 하나 고용하기로 했어. 물건을 찾아 낼수 있는 특출한 사람을 말이야. 그게 바로 제5의 사나이야. 안 그런가?』

납작코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 뜨렸다. 마인은 그에게 담배를 권하고 불을 붙여주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 [illegible] 점이 있어. 제5의 사나이는 킬러야. 따라서 헤로인 따위를 찾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illegible] 트라이앵글에 고용됐지?』

『여자를 인질로 잡았읍니다.』

『[illegible]이란 여자 말인가?』

『예.』

낙태병원 15일 개업

주정부 기소 여부에 관심

토론토 최초의 낙태전문병원이 오는 15일 개업한다. (본보9일자 참조)

캐나다 전역에 낙태병원 설립을 위해 다년간 투쟁해온 헨리·모겐테일러씨가 설립, 원장이 될 이 병원의 이름은 모겐테일러 클리닉(Morgentaler Clinic).

모겐테일러씨에 의하면 낙태수술과정은 1시간 내지 90분으로 끝나지만 실제 수술시간은 5분내지 15분. 수술은 부분마취의 도움으로 진공흡입식으로 진행되며 낙태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로 예약, 병원에서 일정한 서류에 기입한 뒤 심리상담역등과 대화를 나눈뒤 시술을 받게 되며 당일로 퇴원한다.

수술비는 약250달러이나 환자의 경제사정이 다소 고려된다.

모겐테일러씨는 현재 자신의 연수입은 약10만달러이나 새로 여는 토론토 병원에서는 돈을 벌 생각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직접 수술을 담당할 의사는 54세의 레슬리·스몰링씨. 그는 호주의 시드니에서 다년간 합법적으로 낙태전문의사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새로 개원될 병원의 위치는 하보드·스트릿 85번지의 빌딩 2,3층에 위치하며 리셉션·룸, 대기실, 2개의 수술실, 회복실등이 설치된다. 밝고 안락한 분위기를 위해 모겐테일러씨는 10만달러를 투입, 실내를 장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병원이 문을 연후 당면할 가장 큰 관심거리는 온타리오 정부의 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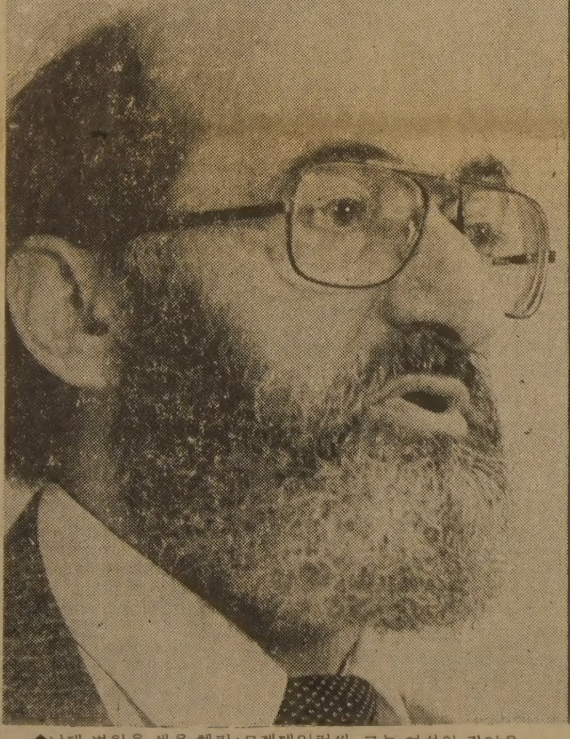
현재 주법에 따르면 인공유산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정규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고 산모의 건강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경우에 진단후 허가됐다.

몬트리얼 출신의 모겐테일러씨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비록 이 병원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지난 주 위니펙의 낙태병원에서 있었던 경찰의 불시습격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위니펙의 모겐테일러 낙태병원은 수술진행중 경찰의 습격으로 수술환자가 종합병원으로 급송되는 수난을 겪었다. "다행히 환자가 무사하긴 했지만 그런 처사는 완전히 야만적 처사"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병원운영이 잘되면 위니펙과 토론토의 병원을 주정부에 팔 수도 있다고 장담하지만 이에 대해 래리·그로스만 온주 보건상은 "현재의 종합병원만으로도 환자의 수요가 충분히 채워진다"고 답변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낙태 병원을 세운 헨리·모겐테일러씨. 그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도 이 병원은 필요 하다고 말했다.

◆하보드·스트릿 85번지에 있는 모겐·테일러 낙태 병원의 전경. 15일 개업 예정이다.

한백성칼럼—동녘바람 서녘바람

한국어와 한글

토론토에는 2세들을 위해 많은 "한글학교"가 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이름이 "한글학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필자를 무슨 비애국자나 민족반역자로 성급하게 단정하고 나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가 한글학교의 존재의의를 부정한다거나 빈정대자는 뜻은 추호도 없으니 참아주기를 바란다.

본래 언어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짓기의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의 한글은 우리말의 문자이지 우리 국어자체는 아닌 것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로서 그 뜻을 적어펴기 어려우므로 우리말에 알맞는 우리글인 정음을 창제하였노라고 한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우리 문자인 것이다.

해방후 일제의 일본어 강제교육에서 풀려난 당시의 청소년층이 우리말은 하면서도 우리글을 읽고 쓰고 짓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교육인 한글교육을 시킨 일이 있다. 즉, 문맹자교육으로서의 "한글학교"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이민2세 대부분은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에게는 먼저 우리말을 바로하고 바로듣기를, 그런 다음에 문자교육인 읽고 쓰고 짓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한국어교육이지 한글교육은 아닌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일본인학교가 가나(仮名 かな)학교란 말은 못들어 보았다. 화교학교가 한문학교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서울에 그 숱하게 있는 영어학원을 우리는 알파벳학원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현재의 "한글학교"가 단순하게 우리의 한글만을 가르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며, 또 이를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심어주자는 것일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2세들이 캐나다복합문화사회 속에서 한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조화있는 시민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의당 "한글학교"가 아닌 "한국학교"나 "한국어학교"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교포자녀들을 위한 민족교육기관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한국학교"로 되어 있다. 유독 캐나다에서만 "한글학교"인 것이다.

연재 예고

한백성칼럼

동녘바람 서녘바람

〈편집자의 말〉

한백성씨는 간단히 표현하면,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다. 토론토의 한 외진 곳에서 조용히 상업에 종사할 뿐이다. 이 칼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이름 석자 이상의 소개를 원치 않는다.

그는 탁한 시대를 역류해 보려는 한 한국적 선비인지도 모른다. 한백성씨의 생활과 태도가 조용하고 단정한데 비해, 그의 관찰과 분석은 치밀하다.

그의 지적작업의 소산물 〈동녘바람 서녘바람〉 제목 밑에 연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 오는 15일(수) 부터 주 1회씩 10여회에 걸쳐 실릴 예정인 컬럼의 소재는 "한글학교", "여성상위시대", "고향", "이민에 있어 국적과 시민권"등 다양하며, 다루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동녘바람이 되기도 하며 서녘바람이 되기도 한다.

샛별한글학교
여름학기
학생모집

기 간 : 7월4일~8월5일 (5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 간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학 급 : 유치반 고급반
초급반 고급반
중급반
등 록 : 7월4일 전까지(전화등록받음)
수업료 : $120 (5 주간)
문의 및 연락처 : 이영희 293~3149
문관식 923~2007
학 교 위 치 : CHURCH HEIGHT Public School
749 Brimorton Dr.
Scar. Ontario
(1 Block south of Ellesmere Road)
샛별한글학교

캐나다 한인컴퓨터회(COSKA)
하기 컴퓨터 강좌

저희 한인컴퓨터회(COSKA)에서 교민 여러분들의 컴퓨터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 컴퓨터란 무엇인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어디에 활용 할 수 있느냐 —에 대하여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컴퓨터교실을 한국어로 갖고자 합니다.

대 상 : 일반교민(초보자)
주 제 : —컴퓨터 입문
—컴퓨터 언어
—사용 용도
회 비 : $45
장 소 : 온타리오 교육회관(O.I.S .E)
252 BLOOR ST. WEST
연 락 처 : 669-5232(박성수)
636-9105(이대용)
기 간 : 6월23일~7월21(5주)
매주 목요일 오후7시~9시반

부동산
SKYLINE
REAL ESTATE LIMITED
535~0028 김종조
651 A BLOOR ST. W. TOR.

(1) Plaza 팝니다.
매상 $6,500이상, 그로서리가게 포함.
햄버거레스토랑, 사무실(3개)있음.
Asking : $49만 + Stock.
(2) BLDG및 상가 급매.
Business : $6,500 이상 그로서리포함.
4 APTS 있음.
Asking : $42만 + Stock.
(3) BLDG및 Business
$5,500이상 매상.
Asking : $24만 + Stock.
(4)Convenience Store
Weekly $6,000, 좋은 리스
Asking $6만5천 + Stock.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정신병자 취급받아 입원

부부싸움하다 연행된 교민

(뉴욕지사) 부인과 부부싸움을 벌였던 뉴져지 교포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후 정신질환자로 취급되어 정신병원에서 2주간 강제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뉴져지주 져지시티 헨더슨 스트릿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6일 새벽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와 심한 언쟁을 벌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 연행된 후 정신병자로 취급되어 져지시티 메디칼센터 정신병동에서 2주간 강제치료를 받은 후 21일 퇴원했다.

최씨는 입원기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정제등을 복용해야 했으며 병원측의 감시로 심한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자신을 연행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옷을 찢는등 난폭하게 대했으며 연행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 1천8백달러가 경찰서 내에서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퇴원후 한인의사를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그의 정신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경찰이 그를 정신병환자로 취급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져지시티 경찰당국은 최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내용과 부인및 이웃사람들의 증언으로 보아 경찰이 연행당시 그를 정신질환자로 취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최씨는 평소에도 부부간의 언쟁이 잦아 이웃의 빈축을 샀으며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등 행동이 이상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연행당일에도 부인을 전화기로 때리려고 하는등 난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경찰을 부르게 된것이라고 한다.

져지시티 경찰 자체수사반은 경찰서안에서 돈을 분실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그의 진술을 청취하겠으나 증인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최씨의 한 친구는 그러나 최씨를 면회했을때 의사로부터 그가 일시적 정신착란증세를 일으킨 것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6년전에 이민왔으며 지금까지 정신병을 앓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어즈대회 출전

나브라틸로바

여자 테니스의 강호인 마티나·나브라틸로바선수는 오는 8월13일부터 21일까지 요크대학 내셔날테니스센터에서 열리는 플레이어즈·찰렌지대회에 선수권방어를 위한 참가 신청을 했다.

전년도 우승자인 마티나선수는 작년 한해동안 테니스의 각종대회를 휩쓸어 백만달러이상을 벌어들였다.

한편 삼관왕을 노리던 마티나선수는 5월말 프랜치오픈 서전에 고배를 마셔 탈락했다.

플레이어즈 대회에는 이미 미국의 강호 트레씨 어스틴선수와, 토론토의 칼링·바셋선수등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앞으로도 유명선수가 계속 신청할 예정.

◆나브라틸로바선수

공해는 어린이 뇌 손상

토론토 국립생환연구소 주장

토론토 국립생환연구소(National Survival Institute)는 심각한 공해가 수많은 캐나다 어린이들의 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NSI의 올리바스트리 감독관은 토론토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모임에서 이같이 말하고 레디드(Leaded) 개솔린 공해로 인해 도심지 주변 어린이들이 뇌에 큰 손상을 입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들에게 영향이 커 위험도가 높다고 경고 했다.

그녀는 미국의 보건협회의 경우 1년에 9억달러 이상을 들여 자연환경보호와 건강을 위한 비용을 들이고 레디드개솔린 공해로 인해 병든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보스키의사는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공해흡수력이 빠르다고 강조하고 레디드의 위험율에 동감을 표했다.

한편 에틸캐나다회사의 케네드·프레버그사장은 이 보고가 레디드·개솔린의 공해가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프라노 김기원씨

에드몬톤에서 연주회

(에드몬톤)미국의 커티스음악학원(Curtis Institute of Music)서 성악을 전공하는 소프라노 김기원(25)양이 지난달 27일 에드몬톤에스 공연을 가졌다.

「알버타주 뮤직·오디토리움」서 열린 이 음악회에는 약2백명의 교포, 캐네디안 음악관계자들이 모였다.

반주는 김옥현씨, 이날 에드몬톤 거주 테너 유재량씨가 특별출연, 음악회를 빛냈다.

김기원양은 서울예고, 서울음대(2년 수료)등을 거쳐 79년 미국으로 왔다.

현재 유명한 커티스음악교 4년생이며, 금년 1월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미국주재 유학생 성악부문 장학금 1천달러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필라델피아한인회 주최로 음악회를 가졌다. 김양이 에드몬톤에서 음악회를 가진 것은 3촌 유인형씨(본보 에드몬톤지국장) 주선에 의한 것이다. 유재량씨는 유씨의 처남이다.

◆김기원양

533－2361

회장에 최의영씨

이화여고 동창회

이화여고 동창회(회장 김양자)는 지난 4일 가진 총회겸 봄철 야유회에서 새 회장으로 59년 졸업 최의영씨를, 부회장으로 66년 졸업 이현숙씨를 선출했다.

새 회장단은 9월중 토론토를 방문할 66년 졸업 남우정동창의 모친인 모교스승 이철경씨와 이미경씨의 2인 수예전 후원 및 연례 동창회행사 등을 새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IT DOESN'T WORK.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시계를 차고 있지 않고 옛날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You're not wearing your new watch.(새로 사준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구나)하자 아들이 It doesn't work. 라고 대답하였다.

It doesn't work.란 글자 그대로 「일하지 않다」, 「작동하지 않다」 즉, 「고장났다」는 뜻으로 미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문형을 사용하여 「이 라디오가 고장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This radio doesn't work. 하면 될 것이고, 「이 녹음기가 고장났다」는 This tape recorder doesn't work. 하면 된다. 물론 이 때, ing형을 사용하여 This tape recorder isn't working.라고 하여도 같은 말이 된다.

물건이 고장났다는 말은 out of order를 쓰는 수도 있으나, 다만 다른 점은 out of order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사람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공 물건인 경우에 주로 쓰여지며, 특히 고장난 물건에 「고장 표지」로 부착될 때 쓰인다.

예를 들어서 「이 승강기가 고장이다」, 「공중 전화가 고장이다」,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This elevator(pay phone, traffic light) is out of order. 라고 하며, 위에 나온 것처럼 개인 소유의 시계가 고장났다고 할 때는 out of order를 쓰는 것 보다는 My watch doesn't work.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된다.

A: You're not wearing your new watch.

B: No, it doesn't work.

A: Doesn't work? But you got it only a month ago.

B: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A: Do you know what's wrong with it?

B: I think the mainspring is broken.

A:새로 산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구나.

B:아니오, 고장났어요.

A:고장? 한 달 전에 샀지 않니?

B:옛 날처럼 만들지를 않아요.

A:뭐가 고장인지 아니?

B:아마 큰태엽이 부러진 것 같아요.

*pay phone:공중 전화.

*mainspring:큰태엽.

*used to~:~하곤 했다.

ex) They used to meet under that tree.

(그 사람들은 저 나무 아래서 만나곤 했지.)

〈발음〉「유스터」로 발음된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專閥·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SAVE 40%

Noritake
여름철 특별세일
Noritake Has More Beautiful Ways
FOR MEMORABLE DINING EXPERIENCES
빅*세븐무역선물센타
660 BLOOR ST.W.
(내고향통닭집 옆)
PHONE: 533-7966 대표 김영철

금년에는 유럽여행을………… 영국·화란편③

교통연결이 잘 된 구라파

김창범(신세계여행사 대표)

◆김창범씨

런 던

「시청」:런던시내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중의 하나로 내부도 볼만하다. 토요일과 은행 정기휴일에는 참관 자유. 이곳으로 부터 봄·여름철에 걸쳐 「템즈」강 유람선이 출발한다.

「성·바울성당」:「로마」의 「성·베드로」사원을 모방한 것. 현관 위에는 「성·베드로」와 「성·재임스」의 전신상을 좌우로 중앙에 거대한 「성·바울」상이 놓여 있다. 「도무」정상에 십자가가 있고 지상에서 높이가 113미터. 내부에는 「넬슨」「웰링톤」「킷치너」를 위시하여 위인의 기념비와 묘가 많다. 1666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렌」이라는 건축가가 1675년 재건을 시작하여 그의 나이 80세가 된 1710년에 완성되었으나 2차대전 중 맹폭으로 건물의 일부를 상실했다.

본당의 입장은 가능하나 예배중에는 중지된다.

「런던탑」:1078년 「윌리암」정복왕에 의거 세워진 백색탑을 중심으로 증축된 오각형의 요새겸 궁전이다. 13개의 고탑과 호가 있고 성벽도 2중으로 돼있다. 「에리자베스」1세 여왕 때 부터 국사범의 감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기 갇혔던 사람 중에는 국왕, 귀족, 명사 등 수다하며 아직도 피비린내가 나는 감이 든다. 현재 일부는 병영과 박물관으로 되어있고 특히 왕의 즉위용 왕관, 왕검, 대대로 국왕이 제관식에 사용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 등이 보관돼 있다.

이곳의 수위를 「Beefeater」라고 부르고 16세기로 부터 사용되는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매 15분 마다 안내역을 맡고 있다. 입장은 평일 9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여름철에 한해 일요일에도 오후에 입장이 된다.

「대영박물관」:역사, 고고학, 예술 및 토속학의 국립도서관 겸 박물관으로서 대영제국의 위풍을 간직한 세계최대의 박물관이다.

「이집트」, 「희랍」, 「로마」, 「앗시리아」,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장서 800만권의 대영박물관

이준열사로 유명한 헤이그

세계 각국의 미술품, 골동품 고고학적 출토품, 민속자료 등이 수집돼 있다. 800만권의 장서보관.

입장은 평일 10시 부터 5시까지. 일요일은 오후만 입장이 된다.

영국화폐는 파운드(Pound)로서 1「파운드」가 100「펜스」. 미국의 1불이 약 0.6「파운드」. 펜스(Pance)는 복수이고 단수는 페니(Penny).

구라파관광은 대부분 런던에서 부터 시작된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 미대륙으로부터의 항공요금이 워낙 싸고 또 관광선전이 잘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계가 입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었 듯이 과거의 식민지와의 교통편이 잘 연결돼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수십종류의 구라파관광 「페케이지」가 있으나 관광내용의 등급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과 끝에는 시설 좋은 호텔에서 편히 쉬어야 다음날 여행을 지장없이 떠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버킹햄궁전 수비대 교대식은 런던의 명물의 하나. 사진은 유니폼으로 정장한 궁중 수비대원.

암스텔담

「튜-립」꽃과 풍차의 나라 그리고 바다를 개간하여 바다보다 낮은 곳에 국토를 넓힌 나라로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화란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여도 각자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닷치·데이트」로 유명한 노랭이 국민으로 알려진 나라.

그러나 카나다와는 밀접하여 화란왕실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C.P.Air나 C.P.Rail 등 수송업에 관련돼 있다고 들었다.

「오타와」의 「튜-립」은 화란여왕이 2차대전중 피난해 있을 때 신세진 것에 보답키 위하여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2차대전 중 나치독일로 부터 화란을 해방시킬 때 카나다군이 선봉으로 화란에 입성하였다고 하여 양국의 우정은 유별나게 깊다. 화란의 해방기념일에 카나다재향군인을 초청하여 은혜에 감사하는 행사가 가끔 개최된다.

화란면적의 1/4이 해면보다 낮으므로 제방으로 해수의 침입을 막고 있다. 원래 이 나라는 늪지대 였다. 중세기 이래 물과의 끊임 없는 투쟁이 계속되어 풍차나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으며 물을 빼내기 위한 운하의 길이만도 8천Km나 된다.

이 나라에는 과거 「인도네시아」가 식민지였던 탓인지 「인도네시아」요리가 많이 눈에 띈다.

「치즈」와 맥주로 「하이네켄」이 유명하다. 화란국민은 아침식사 부터 「치즈」를 즐긴다.

「암스텔담」:화란의 수도, 인구 120만. 본래 「암스텔」강의 제방이라는 뜻에서 생긴 명칭이다.

도시의 중심으로 부터 부채살모양으로 운하가 사방으로 뻗쳐 「북방의 베니스」라고 호칭되기도 한다. 무수한 운하가 100개 이상의 섬을 만들고 650개 이상의 다리로 연결돼 있다.

옛날과 현재가 조화있게 공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시내관광은 유리로 된 유람선을 이용할 것이다.

시내에서 볼만한 곳으로 국립미술관이 있다.

1808년에 건립되어 15-19세기의 화란명화가 진열되어 있다. 「빈센트·반·고호」를 기념하는 「고호」미술관은 본격적 미술관이다.

시내 중심가에는 화란 「르네쌍스」식 거대한 건물인 중앙역이 있다. 물에 둘려싸여 있어서 도선장이 되기도 한다. 근처의 왕궁과 제관식이 거행되는 교회 등이 있다. 「안네·프랑크」를 기념하는 집도 있고 유태인이 경영하는 「다이아몬드」공장도 볼만한 관광코스에 포함돼 있다.

「암스텔담」에서 60Km 떨어진 곳에 「해그」가 있다. 이준열사로 유명한 곳이다. 「암스텔담」이 헌법상 수도이나 실제로 모든 공식행사는 이곳에서 거행된다.

올여름劇場街 등골이 오싹해진다

더욱 惡名떨칠 살인마「조스」·힛치콕의「싸이코」속편 등장

걸프렌드의 「수퍼맨III」·제임스·본드 007 2篇등

올여름 극장가는 주로 오싹하는 공포물 영화가 휩쓸 전망이다. 악명높은 살인마 「조스」가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알프레드·힛치콕의 클래식 「싸이코」의 속편이 개봉을 서두르고 있다.

이외에도 정의의 사나이 수퍼맨이 새로운 걸프렌드와 등장하는 「수퍼맨III」와 스릴만점의 제임스·본드 007 두편이 올여름 관객을 노리고 있다. 조지·루카스의 3번째 「스타·워즈」작품인 「리턴 오브 더 제다이」도 곧 나오게된다.

올여름 헐리웃에 등장할 새영화를 소개해본다.

▲「수퍼맨 III」:강철같은 사나이 크리스토퍼·리브가 새로운 얼굴의 걸프렌드인 안네트·오툴과 함께 출연한다. 전편에서는 걸프렌드 마고트·키더도 계속 출연하지만 활동이 미미하다. 리차드·프라이어는 컴퓨터천재로, 로버트·본은 악질 사업가로 각각 출연한다.

▲「조스 3D」:오리지날 「조스」보다 더 무섭게 만들었다. 3차원을 의미하는 3D(Three-dimensional)기법으로 상어의 잇빨이 관객을 향해 달려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출연진은 베스·암스트롱(영화 「하이로드·투·차이나」에서 톰·셀릭의 상대역」, 루·고셋(「장교와 신사」에 출연), 데니스·케이드. ▲「싸이코 II」:정신이상 살인자 노만·베이츠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1960년도 힛치콕의 명작.

▲「옥터퍼시(Octopussy)」:제임스·본드의 007 시리즈로 새로 만든 영화중의 하나. 로저·무어와 「태투(Tattoo)」에서 요염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드·애덤스가 출연한다. 이국적인 배경을 깔고 위기와 재난을 멋지게 그린다.

▲「네버·세이·네버(Never Say Never)」:핸섬한 숀·코넬리가 제임스·본드로 출연한다. 새영화 「옥터퍼시」보다 후에 개봉될 예정. 바바라·바흐의 뇌살적인 매력이 마음껏 발휘된다.

▲「브레인스톰」:1981년 11월 나탈리·우드가 죽기전에 만들어진 그녀의 마지막 영화. 나탈리가 영화가 끝나기 전에 익사했지만 제작자 더글러스·트럼벨은 1백만달러를 들여 작품을 완성했다. 클리프·로벗슨과 크리스토퍼·월컨이 나탈리와 공연한다.

▲「브레스리스(Breathless)」:보기에도 뜨거운 로맨스영화. 리차드·기어와 19세의 불란서 배우 발레리·카프리스키가 올여름의 더위를 열렬한 러브신으로 장식한다. 1959년 불란서 클래식의 개작이다.

▲「스모키 이즈 더 밴디트」:「스모키」시리즈의 세번째 작품. 추격, 묘기, 엉뚱한 음모로 한바탕 희극이 벌어진다. 이번에는 버트·레이놀즈가 빠지고 잭키·글리슨이 등장한다.

▲「스테이잉·얼라이브」:「토요일밤의 열기」의 속편. 존·트라볼타가 실베스터·스탤론의 감독아래 출연한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미모의 여성으로는 영국계 댄서인 피놀라·휴즈.

▲「트와일라이트·존(Twilight Zone)」:「E·T」의 제작자 스티븐·스필버그가 감독하고 「애니멀·하우스」의 존·랜디스가 제작한 작품. TV인기시리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이 영화에는 4편의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 만들었다. 작년 빅·모로와 두명의 어린이를 촬영도중 헬리콥터추돌사건으로 죽게했던 바로 그 영화다.

▲「두개의 뇌를 가진 남자(Man with Two Brains)」:스티브·마틴의 팬들은 꼭 봐야할 영화. 마틴은 교활한 자기 부인을 싫어하는 세계적 명성을 지닌 뇌수술 외과의사로 나온다.

▲「고잉·버서크(Going Berserk)」:데빗·스타인버그 코미디. TV코미디 시리즈인 「SCTV」 제작진과 함께 제작해 낸 작품.

▲「내쇼널·램푼스 베케이션(National Lampoon's Vacation)」:체비·체이스와 크리스티·브링클리가 한바탕 웃겨준다.

새映畵

▲「브레스리스」에서 열연하는 리차드·기어와 발레리·카프리스키.

都心빌딩서 21세靑年 등반曲藝

▲금년21세의 데이빗·애드콕이란 사나이가 스키마스크와 푸른가발을 착용하고 3개의 흡입컵을 이용, 휴스턴소재 71층의「얼라이드뱅크」거울빌딩을 오르고있다. (왼쪽) 15시간에 걸쳐 68층까지 오른 애드콕은 갑자기 뛰어내려 밑에서 보고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가운데) 그의 등뒤에서 낙하산이 펴지면서 또 한번의 곡예를 연출하고 지상에 안착.(오른쪽) 지상에 내린 애드콕은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그는 82년 여름 당국의 허가없이 요세미티국립공원내 엘카피탄 암벽에서 뛰어내린 죄로 18개월의 유예기간중이었다. 〈휴스턴-AP〉

감사의 말씀

지난 6월5일에 거행했던 본 임마누엘교회의 박하규목사 취임예배는 여러 친지들과 각 교회 교우들 다수가 참석해 주셔서 성대히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신 여러분께 일일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줄 생각하오나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이같이 지상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교회는 신임목사의 취임에 이어 6월12일(일) 교회창립 6주년을 축하하는 겹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잔치에도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쁨은 몇갑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소 : 63 Dunblaine Ave, Toronto

1983년 6월8일

임마누엘 연합교회 드림

여름학교 학생모집

본 학교에서는 여름 방학동안 특수과목을 설치하여 저명한 교사진과 효과있는 교육방법으로 국민학생과 중등부 학생을 모집합니다.

□필수과목 · 한국어
□선택과목 · 영어, 수학, 미술, 컴퓨터
□REC 프로그램 · 2박3일 그룹캠핑(2회)
□일 시 · 7월4일~29일(매주 월~금) 오전9시 부터 오후3시
□장 소 · T. L. Kennedy High School
(HWY 10 & Dundas St. 미시사가)
□문 의 처 · Mrs. 장 823-5774 Mrs. 천 275-3274
Mrs. 이 247-1145 Mr. 오 270-3118

KOREAN CANADIAN
ACADEMY

CITY OF TORONTO

공고

창문에 아동보호용 장치부착건

토론토시의회는 83년4월22일 회의에서 주거지에 관한 조례(시정부의 법)를 개정, 시조례 323-83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1. 주거지 조례를 개정한 시조례 73-68호에 다음과 같이 제29항을 추가한다.

(10)×× 집단거주 주거지(아파트빌딩, 듀프렉스등)의 창문들은 다음같은 자동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a)창문이 4인치이상 열리지 못하도록 한다.
(b)창문은 열쇠나 특별기구를 사용치 않고서는 제거되거나 더 열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한다.
(11)창문중 발코니 또는 현관 옥상을 향한 것은 제외된다.
(12)3층 이하의 창문, 또는 1층 이하의 창문은 제외된다.
(13)10항및 12항중 「층」이라함은 마루바닥과 위의 마루바닥 사이를 의미하며, 「1층」이라함은 땅에서 가장 가까운 층, 또는 천정이 땅에서 6피트 이상 높이에 있는 층을 말한다. 같은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층수가 높아진다. 「땅(Grade)」이라함은 건축물을 둘러싼 바닥의 평균 높이를 의미한다.

2. 이 조례는 83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Roy H. Henderson
시 총무국장

토론토 시청

教授 승진·再任命기준 強化

論文발표·講義업적중심 탈피
학생指導·사회寄與度등 참작

文教部、관계法規 고치기로

대학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수의 승진및 재임명기준이 강화된다.

문교부는 7일 대학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의 자질을 높이는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아 ▲신규 임용의 경우 반드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위해 대학내 인사위원회구성의 강화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승진은 현재 대학의 관행으로되어 있는 연구 (논문 발표)와 강의(수업) 업적중심에서 탈피、학생지도와 사회봉사및 기여도를함께 포함시키고▲현재 조교1년、조교수·전임강사3~3년、부교수 교수 6~10년으로되어있는 재임명기간을 단축시키기로하고 이를 밑받침하기위해 관계법규(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를 고치기로했다.

문교부는 또 조교수와전임강사는 2년、교수 부교수는 5~7년으로 단축시킬것도 검토중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교수연구업적및 학생지도에 관한 심사가 형식에 그치는경우가 많아 교원자질향상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예를들면 논문심사의 경우 외부인사1명을 포함、자기대학교수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논문을 심사해와 한번 전임강사로 임명된 교원은 대부분의경우 연구업적이없어도 연한이차면 자동적으로 조교수―부교수―교수로 승진돼오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李奎浩문교부 장관은 이날상오 문교부 국·실장 회의에서 이문제에관해 언급、『대학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재임명제도가 엄격히 실시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2년 전국 98개대학에서 교수 재임명에의해 탈락된교원은 전부 7명으로 이중 교수는 1명(忠南大) 뿐이고 나머지6명은 전임강사였다.

문교부는 이밖에도 대학발전을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교양및 선택과목의 비중을 높이기로하고 현재 1백40~1백60으로 되어있는 졸업학점중 60학점정도의 전공과목 단위를 40학점정도로 줄이고 대신 교양과목과 선택과목수를 확대키로했다.

대학의 전공과목 단위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은세계적인추세인대학의대중화와 대학원중심교육으로의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교부는 초·중등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자격연수등 교원 재교육과정도 개편키로 했다. 이 개편에는국민윤리및 정신교육에 관한 교과목이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市債 日證市에 上場

百50億규모 지하철 3·4號線재원 충당

서울시채 1백50여억원어치가 이달말 일본 東京증권시장에 상장된다.

서울시는 지하철3、4호선 건설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위해 지난해말 시채 3백여억원을 東京 증시에 매각키로하고 한·일두나라 정부및 東京금융 시장측과 협의를 벌여왔는데 최근재무부와 일본정부 (大藏省)로부터 우선 1백50억원 (50억엔) 어치를 상장해도 좋다는 승인이나 현재 국무총리실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총리실 승인이 나면 오는24일께 실무진이 도일、매각간사회사인 노무라 (野村)증권과 東京은행간에 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채상환기간은 1년이고 이자율은 아직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채 매각 대금50억엔을 전액현금으로인수、국내에서 환금해 지하철3、4호선 건설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채가 일본증권시장에 상장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國際복싱聯 헐會長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7일 하오 청와대에서 국제아마추어 복싱연맹의 돈·헐회장 (미국인)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李源京체육부장관 鄭周永 대한체육회장 金昇淵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회장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의 안와르·초드리사무총장이 배석했다.

"한국 飛行情報구역 통과 日·中共 새航路 8월開通"

홍콩紙보도

3國 구체적인 檢討작업

【홍콩=聯】한국의 비행정보구역 (FIR)을 통과하는 중공과 일본간의 새로운 항공노선이 오는8월조순 개통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고 6일 홍콩의 星島日報가 보도했다.

星島日報는 일본소식통들을 인용하여 한국·일본·중공등 3개국의 항공관계당국이 이같은 새로운 항로의『한계』를 확정짓기위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하고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신문은 東支那海와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이번 항로는 중공·일본간의 비행시간을 21분 단축시키고 (비행거리상 1백71해리단축)일본항공(JAL)의 경우 매주 8차례의 취항을 하고있어 연간5억파운드(日貨약2억3천만엔)의 연료를 절약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아마도 오는 8월4일 중공·일본간의새로운 항로가 개통될것이며 개통4주전에 양국의 조종사와 항공사에 개통사실을 통보하게 돼있다고 밝힌것으로 이신문은 덧붙였다.

「工事감사」세미나

아시아지역 監査院 工事감사 세미나가 7일상오감사원 강당에서 개회식을갖고 개막됐다.

「工事감사 技法」이라는 主題로 오는18일까지 계속될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20명、국외19개국에서 24명등 모두 20개국에서 44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南美 베네수엘라國 초대駐韓大使 임명

베네수엘라 정부는 4일 알바로·바리오스·밥티스타 베네수엘라 관광공사首席부총재를 초대駐韓常駐대사로 임명했다고 외무부가 7일 발표했다.

밥티스타대사(37)는 베네수엘라海運공사경제고문 駐日본지사장、駐日商務참사관을거쳐 해운공사총재고문、관광공사수석부총재를 역임한 통상관계전문가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Toronto THE KOREA TIMES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어비스
한국일보 533-2361

政治懸案 광범위擧論

各黨 잇단 幹部회의
임시國會 대책 논의

民正·民韓·국민당은7일상오 각각 간부회의를열고 최근의 政治懸案과 임시국회소집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民正黨은 이날 中執委상임위에서 임시국회소집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소집일자와 會期등의 결정을 對野교섭을 맡고있는 李鍾贊총무에게 일임했다.

그런데 民正黨은 이번국회會期를 대정부질문 1~2일、상임위활동5일、본회의안건처리 2일등 10일정도로 잡고 이번임시국회에서 최근의 政治懸案을 광범위하게 거론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民韓黨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임시국회대책을 논의한결에 이번국회에서 최근의 정치현안과 학원사태、언론문제등 정치전반에 걸쳐 현안들을 집중적으로거론키로했다.

이날회의는 또 이번국회에서는 정부제출법안뿐아니라 야당측이 제출한 국회법、언론기본법개정、地自制실시문제등 政治議案도 적극적으로 다루기로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회에서는 최근의 정치현안이 심도있게 다뤄질경우 會期문제는 다소간 신축성을 보일수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회의에서 柳종재는 『현시점에서 民韓黨의 당면과제는 임시국회를 早期소집、정치현안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黨이제출한 정치의안의 결실을 얻어내는데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당직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당면 時局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黨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金鍾哲총재는 『이번국회에서는 정치현안은물론 국회법과 地自制관계법및 양곡관리법안등도 다루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 對정부질문자로 정치부문에 林德圭、경제부문에 李成一、사회부문에 金基洙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3黨총무들은 임시국회 召集에는 의견을같이했으나 운영일정에 異見을 보였다. 左로부터 林鍾基民韓, 李鍾贊民正, 李東鎭국민당총무。

임시國會 來週소집

3黨총무、구체日程 오늘再論

與野는 7일하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제1백17회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來週中 국회를 소집한다는데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구체적인 소집시기、會期、議題등은 8일 다시 회담을 열어 협의키로했다.

이날 李鍾贊民正·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는 최근의 政治懸案과관련 모든 政治문제를 국회로수렴하여 충분히 논의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구체적인 국회운영방법과 절차에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이날회담에서 民韓·국민등 야당측은 국회의운영日程에대해 ▲오는13일께 소집하고▲會期는 당초20일에서2週이상▲정부의國政보고 ▲對정부질문은 정치 경제 사회등 3개분야로나눠최소한 3일이상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측은 ▲소집시기는 오는 16일께로하고▲회기는 10일 ▲對정부질문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 2개로 2일간 할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與野간의절차상의 異見은 정치현안을 다룬다는 본질문제에합의했기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8일회담에서는 대체로 타결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蘇서 韓日등도발땐 美、全面개입불가피

US리포트紙보도

【워싱턴=聯】미국은 西유럽과 한국·일본등에 대규모地上軍을 배치하고있기때문에 소련이 군사적모험을 감행할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미국을全面戰에 끌어넣게 될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13일자에서 말했다.

이잡지는 국방에관한 특별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의말을인용、이같이 보도하고 해외주둔美軍의존재가 두가지의 결정적인 방법으로 소련군사력의 억제에도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잡지는 우선 미군의 존재가 소련으로 하여금 自國국경입대의 국사적 움직임을 억제토록하고 있으며 미국이 개입된 전면전을피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533-2361

구노 日朝議員聯회장 16일 平壤에

무역代表部 설치등 협의

【東京=宋孝彬특파원】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의 구노·주지 (久野忠治·自民·회장) 의원과 요네다·도고(米田東吾·社會·사무국장) 의원은 이달16일 북한을 방문 ①무역대표부의 설치를 포함한 경제교류의 확대문제와 ②민간어업협정의 교섭재개 ③한반도상공을 경유하는 새로운 항로의 개설등을 협의할것으로 7일 밝혀졌다.

북한의 대외문화연락협회는 6일밤 日·朝의원연맹 구노의원의 북한방문을 환영하며 대외문화협회부장인 玄峻極訪日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는 연락을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구노의원의 북한방문신청을 허용한것은 일본정부가 지난5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에 북한대표의 참가를허용하는등 일본의 對북한 미소외교에대한 응답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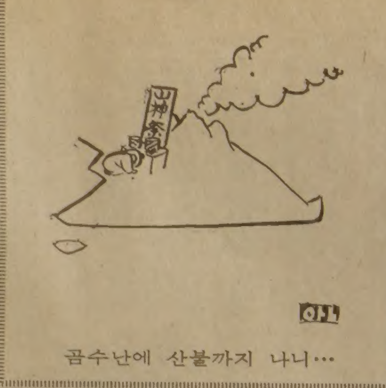
구노의원은 북한을 방문、작년6월말로끝난 북한과의 민간어업협정체결 문제에대한 교섭을 재개하고 경제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기위해 東京과 平壤에무역사무소의 설치를 추진하며 北京―平壤―나리따(成田)、나리따―서울―北京간 항로개설문제등에관해 교섭을 벌일것으로 알려졌다.

民間어업協定 更新문제협의

外務部 밝혀

외무부관계자는 7일구노(久野忠治)의원의平壤방문과日·北傀간 무역대표부설치 움직임과 관련한일본신문들의 보도에대해『구노의원은 지난해6월로 만료된 일본과 북한간의 민간漁業협정更新 문제를협의하러 가는것으로 알고있다』면서『북한측은 東京과平壤에 통상대표부설치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있지만 일본정부는 전혀고려치않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고밝혔다.

社會漫評



곰수난에 산불까지 나니…

地平線

당대 불교계의 大講伯인 呑虛스님이 5일 오대산 月精寺에서 입적했다. 스님이된지 49년만이요、世壽가 71세였다. 儒·佛·仙의 三教에 통달했고、특히 어려운 불교의 화엄경과 유교의 주역에대한 이해와 경지는 남의추종을 허락하지 않았다. ▼呑虛스님은 본디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畿湖학파의 巨儒 崔勉庵의 학통을이어 經書를 섭렵하다가、어느날 홀연히 宇宙萬物의 生成消滅과 人生에 疑義를 느껴 그무렵 叢林中의 高僧인 漢岩禪師를 은사로 佛門에 들었다. 22세의 妻子가 있는 몸이었다. ▼스님되기위한 修行은 말그대로 용맹정진의 연속이었다. 3년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않는 默言參禪이며 15년동안 月精寺경내에서 두문불출하며 獨處止觀했던 일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어려운 한문불경을 우리말로 옮겨서 후진도제들의 수학에 도움을 준 일이다. ▼입적하기전 10년에 걸쳐 스님이 집필 출간한 저서만도 新華嚴經合論 46권을 비롯하여 원고지로 따져서 6만3천여장、等身이 넘은 그 積功이 어떻다는것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말이많은 것은 선비의 병이 되고 글이 번거로운것은 도인의 해가 된다」고 하여 말과 글을 아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道力의 소이였음인지、미래를 보는 눈이 밝아서 6·25를 예견했다하고、울진공비사태와 같은 화변을 미리알았으며、스스로가 입적할 날도 예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그의 초능력을 방불케 하는 통찰의 힘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예사롭던 스님의 平常心이라 하겠다. ▼시봉하는 스님이 「如如하십니까」하고 물으면 「如如하지」하고 답하고 마지막 法門을 울며 청하자 「일체無言」의 한마디로 生을 닫는다. 우리는 이같은 한 高僧의 遷化에서 슬픔 보다는 되려 맑은하늘에 머물렀던 한점 구름이 자취 없이 스러진 다음의 푸르름을 보는듯한 淸淨한 마음의 餘韻을 되씹게 된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문기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고교동창대항
야구대회

일 시 : 1983년6월25일(토)
장 소 : 에토비코크 센테니얼 팍
(HY 427W. & Eglinton S.)
회 비 : 팀당 80불(주장회의시)
주장회 : 6월17일(금) 오후7시
아리랑하우스
연락처 : 신동호(부회장) ☎298-8573
이수철(총무) ☎663-4663

주최 : 경복고등학교동창회
회장 이영현
후원 : 대한체육회 야구협회

교회창립안내

3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오샤와 지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교회 창립을 위해 기도해 오던 중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교민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일 시 : 83년 6월 12일(주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St. LUKE'S Presbyterian Chruch
333 Ross Land Rd. West
(Park Rd. North & RossLand Rd. West)
○예배주관 : 미주 한인 장로회 카나다 노회

미주한인 장로회
오샤와한인장로교회
창립준비위원일동

모국방문에의
초대

해외교포에게 오늘의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 드리고자 새마을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카나다교포를 관광및 산업시찰여행에 초대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인원미달시는 취소됨)
⊙대상 : 카나다 이민온지 6년이상자
⊙출발예정일 : 1983년 7월중순
⊙기간 : 약2주간(체제비 일체부담)
⊙항공료 : 자비부담(대한항공 이용)
⊙신청요령 : 소정양식에 의거 6월30일까지 신세계여행사 (536-2155)에 항공료 첨부, 신청바람.
⊙연락및 문의 : 선미광고 531-6430

대한민국 새마을본부
해외협력부장 최성락
총 장 전경환

6월國會가 열리면…

엇갈린 與野의 立場과 時局을 보는눈

한때 不發、流産、不召集說등으로 漂流하던 임시국회소집문제가 來週중에는 실현될것같다。

지난봄국회에서 6월초에 열기로 약속했던국회소집문제가그동안뜻밖에 벽에부딪쳐 논란의 대상이됐던것은 당초의 임시국회效用論외에 새로운 政治懸案에대한 與野의 엇갈린 입장과 時局을보는눈이 달랐기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政治場外의 문제를 국회가 어떻게 분석、평가하고 또 어떻게 수렴해야하는가의 視角의 차이로 설명할수 있다。

사실 약속대로 국회소집문제가 제기됐을때 與野모두 異口同聲으로『반드시、어떤일이 있어도연다는 원칙은 不變이다』라고 强辯하면서도 실현에 선뜻 나서지못한것은 각기 정치현안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말해주는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국회는당초의 정부제출 法案만을 처리키로 하려던「입법국회」의 차원에서 정치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명실상부한「정치국회」가 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지난週末을 고비로 겨우 숨통이 트인 場外요인을 場內로 끌어들임으로써 자칫 정치熱度를 높일지도 모른다는여당권의 전술적 우려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氣流를 급상승시켰던 현안문제들이 바로 場內정치의 不在에서 비롯됐다는 野黨圈의 주장에 與黨圈이 귀를 기울이고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현안의 문제는 새로운사태의 전개로서 제도밖의 소리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는 측면에서나、類似한 사태의 재연를 사전 봉쇄한다는 측면에서나 여야가 새로운판단과 인식의 정립을 다지고 있는 눈치들이다。

사실 지난 20여일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발생한 여러 상황변동은어느때보다도 국회의 제기능 발휘가 절실히 요구됐었다。

우선 정부·여당측으로서는 대통령이 천명한 單任의지의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市中의 改憲說에 쐐기를 박는 후속의 확산조치를 결코 소홀히 할수없는 처지였다。

또한 야당측으로서도 알만큼은 알려진 현안의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四面楚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전개가 국회가 해야할 제기능과 역할이란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보면 이번 임시국회가 해야할일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李鍾贊 民正총무의『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모든 문제를 완전히 燃燒시켜야 한다』는 暗示나 林鍾基 民韓、李東鎭 국민당총무의『모든 정치적 상황을 국회로 끌어들여 국회의 활동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도 이같은 脈絡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다만 民正黨으로서는 지나칠만큼 현안의 사태에 집착함으로써 場內기류가 상승할경우 다시場외로 逆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현안의 사태를 문제 제기의 차원이 아닌 수습적 차원에서、정치攻防보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도의 담담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반해 야당으로서는 명분이나 살리면서짚을것은 모두짚어 보면서 할만큼은 해야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제1야당인 民韓黨은 與黨과 在野의틈바구니에처한『곤욕스러운 신세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역연하다。

여야당의 이러한 미묘한 입장은 7일 상오 각기 열린 民正黨의中執委상임위원회에서나 民韓黨의 당무회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民正黨이 사태를 냉각시키면서 시일을 늦추어 국회를열되 신중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거듭확인한 반면、民韓黨은 계류중인 정치의안보다는 정치 현안에 역점을 둘것을 명백히 했다。

場外문제 國會수렴 試驗臺

與"逆流우려 신중" 野"계류議案보다 懸案역점"

그러나 여야는 현안의 문제가 지난週末을고비로 한 轉機를 마련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의 종합적 처방전의 제시가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론은 없는듯 하다。

그리고 더 이상의 政局梗塞을 피하기위해서는 이같은 病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뒤 고도의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는데는 시각상의 차이가 있을리없다。

그렇다면 회기나 의제 문제등 운영상의 부수적 절차 문제를 가지고 주춤할 필요는 없을듯 싶다。

문제는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궁금증이나 불신감을 어느만큼 해소시켜 줄수 있느냐에 있는것이다。그렇게 되려면 與나 野를 가릴것 없이 모두 국민들이 궁금해 한는것을 풀어주어야할것이다。야당만 떠들고 여당은 말없이 지내라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회의 기능이 또다시의심받게 될것이틀림없다。

어떻게보면 政局안정이나 政治활성화는 상식적인 얘기가된다。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때 이를 회피 또는 지나칠 경우 훗날 예상외의 부작용이 나올여지가 다분히있다。따라서「모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곧 정국안정에의길을 의미한다。

아뭏든 11代후반에 들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국회는 立法府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구실과함께 汎政局상황을 국회가 얼마나 수렴、처리、소화시킬 수 있느냐는 試金石이 될것같다。이는 또한 11代국회가 政治의 本産으로서 모든 場內外의정치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당당히 제기—논의—처리할 수 있느냐는「현실적모습」을 보여줄 수있는 시험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李成俊기자】

비라타首相 사임說속 開放경제정책에 軍部 거센반발

술렁이는 比政局

◇세사르·비라타首相

세사르·비라타(52) 필리핀수상겸 재무장관의 사임설을 둘러싸고 요즘 필리핀정국이 미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있다。비라타수상의 사임설은 최근 마르코스대통령이 임기전에라도 교체할수있음을 시사한데이어 여당인 新사회운동당(KBL)이 비라타수상의 경제정책을공개적으로비난하고나섰기때문이다。

비라타수상의 사임문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성장주의자와 분배주의자、기술관료와 정치인、개발주의자와 보수주의자、민간세력과 군부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경제학교수출신의 비라타수상은 이중에서 前者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필리핀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을 통해 경제규모를 확장해야 하며 국가경제를 이끌고갈 재벌기업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반해 군부를 배경으로한 정치세력들은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보다 균형분배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리한 외자도입으로 필리핀의주권이 손상될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라타수상의 개방정책에 반기를들어왔다。현재 필리핀의 外債규모는 1백8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자신의 권력기반을 KBL에 두고있는 마르코스대통령으로서도 이들의 반발을 모른체할수는 없는 입장이다。

수상경질설이 정국혼란의 요인으로 번져가자 마르코스대통령은 내년 5월국회선거때까지 수상을 교체하지 않을것이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마닐라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이달말께 비라타수상이 경질될것이라고 보도하는등 소문은 그치지않고있다。

지난주 홍콩의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紙가「외국기업인의 눈으로 볼때 필리핀에서 정직한 인물은 비라타수상밖에 없다」고 보도하자 마르코스대통령은 저널紙를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비라타수상은 연초 대통령부인이멜다여사가 주최한 마닐라국제영화제 경비를 정부예산에서 빼내려는 시도를 저지시킨적도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가들의모임인 필리핀 상공회의소는지난2일전례없이 비라타수상 초청 대규모 만찬연설을 마련、그가 입장할때 5분동안 기립박수를 보냈다。하면 만찬의 사회자는『오늘 모임이 비라타수상의 애국심에 대해 필리핀국민이 감사하고 있다는 사의 증언으로 간주되기 바란다』고 말해 그의경제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林鍾乾기자】

크렘린 權力層 大異動說

안드로포프 執權7개월에 새 變化

『인간미라고는 손톱만큼도없는 컴퓨터같은 인물。얼음장처럼 냉정하고 인간이 갖는 감정적 온기는 털끝만큼도 찾아볼수없었다』라는 인물평과 함께『그는 빼어난 유머감각과 탁월한 지성을 지니고 있었다。번뜩이는 재치와 유려한 화술은 나를 매료시켰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평가가 양존하고 있다。

소련의 최고실력자 유리·안드로포프를 가장 최근에 직접만난 세계적인 두거물급직업외교관이 내린안드로포프에 대한 완전히相馳되는 인물評이다。앞의것은 클로드·셰이송 프랑스외상이、뒤의것은 하비에르·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 각각 표현했다。

안드로포프는 집권7개월을맞는 6월중순에 자신의 1人支配體制가 구축되었는가 여부를 판가름 해줄 중요한 두회의를 소집한다。오는15일부터 黨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며칠뒤에는 蘇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黨중앙위 전체회의는 실질적인 소련공산당 최고의결기관으로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최고회의 간부회의는 중앙위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데 그친다。

두회의에 대한 관심의焦점은 브레즈네프死後·공석으로 남아있는 국가원수格인 최고회의 간부회의의장에 누가 선출되느냐와 정치국과 서기국등 黨권력구조가 어떻게 어느폭으로개편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이는 안드로포프가 과연 얼마만큼 자신의 1人지배체제를 강화시킬수 있느냐로 요약 될수있다。지난5월29일 사망한 정치국원 펠셰의 후속인사를 계기로 안드로포프가 그의 최대정적인 콘스탄틴·체르넨코의 견제를 물리치고몇명의 심복을 정치국과 서기국에 새로 임명할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권좌가 지닌 執權의 安定性이 드러난다。또 안드로포프가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을 겸직하느냐 여부는 그가과연 名實相符한 소련의 최고1人者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6월의 두회의는 안드로포프 체제의 장래와 政權의 향방을 가늠해줄 분수령이 된다。안드로포프를 둘러싼 크렘린의 權力향배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낼 시기가 다가오자 안드로포프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과 정치적 색채를 지닌 지도자이며 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하는점에 다시한번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세계 최강국중 하나임을 자부하는 소련의 최고지도자가 취임7개월이 다돼가는 지금 아직도 헤아리기 힘든 비밀의 장막에 싸여 있다는 얘기와도 같다。

지금까지 알려진 안드로포프에 관한 정보는 크게 세가지로 간추려 진다。▲비밀경찰조직인 KGB의長을 15년이나 역임한 공포감을 주는 무시무시한 정보通 ▲20代후반 공산당에 투신한이래 뛰어난행정수완을 인정받아온 정통관료▲그리고 마지막이 헝가리대사를 역임했으며 외교분야에 오랜 실무를갖고 있는「서방세계를잘아는」세련된 지식인이라는 점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세가지로 간추려진 안드로포프의 면모는 지극히 피상적이라는 측면이 다분히있다。심지어는 정보통제권을 완전장악하고있는 KGB가 그동안 안드로포프의 이미지·메이크업을 위해 일부러 서방 언론에 조작된 정보를 흘리고있다는 얘기마저 있다。

◇「근엄한 표정」의 안드로포프(左)와 좀처럼 보기 힘든「웃고있는 모습」의 안드로포프。6월들어그의權力향배가 한꺼풀을 벗으면 그의 참모습 역시 한꺼풀을 벗게될것같다。

안드로포프를 둘러싼 무성한 루머속에서 그가 걸어온 정치역정과 중대한선택의시기에 취한 행동을살펴본다면 그의 참모습을이해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것은 틀림없다。

지난해11월 안드로포프가 집권하자 마자 기강확립과 부정부패일소를 들고 나온 이유를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볼수도있다。

政治局등 개편 權力향배 가름
브勢力축출…少壯 대거起用가능

안드로포프는 수슬로프에 의해 픽업돼 모스크바로 금의환향했고 67년 KGB의장을 맡을때까지 외교분야에서 그자질을 인정받았다。안드로포프의 정치적代父인 수슬로프는 당시 스스로 최고1인자 자리를 브레즈네프에 양도했다는 풍문이 나돌만큼 절대적인 실력자 였다。

안드로포프에게 KGB의장 자리가 돌아간것은 그가 무자비한 능률주의자인데다가 부정부패를 싫어하는 원리원칙에 충실한청교도적 성격을지녔다는 사실이 많은작용을한것같다。

안드로포프는 수슬로프가 죽은뒤 82년에 黨서기국원과 정치국원을 겸하면서 KGB의장을 사임할때까지 15년동안 공포와 테러의 대명사였던 KGB를 근대화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드로포프는 항상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완수해낸 크렘린의 우등생이었다。

그러한 안드로포프는 지금 69세의 고령에다가 건강도 장담할수없는 처지에 있다。

심장마비를 3～4차례나 경험한적이 있고 당뇨병과 담석증등 많은 持病을 갖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따라서 안드로포프가 통상 3～5년 걸리는 1인지배체제구축기간을 단축하려 들고있는 이유도 그의 나이및 건강과 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안드로포프는 최고회의 간부회의의장에 자신이 직접 취임하는것이 여의치 않을경우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우스티노프국방상이나 그로미코부수상을 대신 밀지도 모른다。

체르넨코를 중심으로한 노령층으로 구성된 브레즈네프세력을 축출하고 젊은 소장층을 대거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3월이나 4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黨중앙위 전체회의와 최고회의간부회의가 연기된것도 체르넨코세력의 견제때문이었다는 추측이 나돌만큼 안드로포프의 권력기반이 그렇게 강한것만은 아닌것을 짐작할수있다。

【李炳圭기자】

餘白

좁으면 막히고、넓히면 좁아진다。수수께끼가 아니다。도시의 도로는 때로 인간의지를 逆流케한다。도로행정은 본전치기가 어렵다。잘하면 당연하고 좀 서툴다 싶으면 원망이 높아진다。

남의나라 이야기다。그런데도 남의일 같은 생각이 안든다。도로사정에 관한、일본 東京은「불만의 도시」로 꼽힌다。都政앙케트 조사를 빌린 東京人들의 고백이다。

都政모니터의 98%가 길에「문제가 있다」고 머리를 저었다。그 과밀화의 최근분석은 이렇다。응답자의 반수가 훨씬 넘는 65%가량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33%쯤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회답을 보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추려 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마음 놓고 걸어 다닐만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적다」

「안전한 피난도로나 긴급차가 활동할수 있는 길이 적다」

「녹음과 경관의 혜택을 주는 도로가 별로 없다」

「자동차 공해 방지에 대한 배려가 모자란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길을 걸을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이유는 간단하다。보도가 아주 없거나 폭이 좁으며、자전거도로와 함께 쓰는 보도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東京도민의 요망은 하나로 집약된다。녹화、통풍、日照조건이 갖춰진 생활환경의 확보를 강조한다。일본은 지난해 교통안전 예산으로 일화9천5백51억円을 내놓았다。그래도 도시의 불만은 이처럼 여전하다。바다건너 他山之石이 우리의 아픈곳을 송곳처럼 찌른다。

서울의 차도는 꾸준히 넓혀 졌고、자주 넓어지고 있다。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땅밑으로、지상으로 편의시설이 마련 되었다。횡단「보도」가 거추장스러우면 지하도와 육교가 세워져、자동차는 거침없이 빠져 나간다。

그럴수록 행인들에겐 도시의 교통이 咫尺이 천리처럼 되어 버렸다。가파르게 오르락 내리락하는「인도의 인내」가 차도의 소통을 열어준 셈이다。

길이 열릴수록 비좁다。이 모순이 시지프의 신화를 연상케 한다。고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시지프는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 쉴새 없이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려 올렸다。온 힘을 다하여 밀어 올린 바위는 자체 무게때문에 다시 밑으로 굴러떨어진다。그렇다고 절망하고 포기할수는 없다。

본래 길은 人道다。사람이 오가기 위해 뚫고 닦았다。車道는 그 다음이다。도로행정은 그동안 너무 차도에만 매달려 왔다。결과적으로「도시의 餘白」이 빽빽이 줄었다。거리에 나서면 그 비좁음에 눈이 아리다。여백이 없으면 여유가 안생긴다。빈약한 공원까지 헤아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도로행정의 軸이 인도로 옮겨지기를 권하고 싶다。그렇잖아도 서울도심의 인도가 윤기를 되찾기 시작했다。인조석 보도블록이 매끄럽다。외관의 미화만 서둔다는 핀잔이 없지 않으나、인도를 향한 관심의 전향이라면 평가 받을수 있을것이다。

85년까지 을지로등 세워진 가로의 시설물을 이전한다는 계획도 반갑다。무엇보다 기대가 앞지르는것은 車없는 시범거리의 조성이다。명동등 10개 상가에 벤치를 앉히고 분수대와휴게시설、조경까지 한다니 눈·귀가 한꺼번에 번쩍 뜨인다。

서울이 살아나려나 보다。이구상의 실현을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다。인도와 차도의 균형을 찾을 때가 늦게나마 찾아 온것이다。

거리의 질서는 구호로만 잡혀지지 않는다。질서가 들어설 자리가 필요하다。혼잡한 버스정류장에 드문 드문 줄서기행렬이 돋보인다。어느 누구라 지시한 他律性이 없다。그 정경이 자랑스러우면도 질서의공간이 각박한것이 못내 아쉽다。보도가 좁다。생활환경을 개선하는길은 도시의 여백을 늘리는 것이다。

길은 민원의 公路임을 잊지 못하겠다。도로의 人本주의는 도시의 휴머니즘이다。

劉榮鍾
【編輯委員】

記者의 눈

케인즈、무슨忠告 할까

『케인즈經濟學은 죽었는가』—지난5일영국이 낳은 20세기의 경제학자 존·메이너드·케인즈의 탄신 1백주년을맞아 다시 한번 떠 올리는 의문이다。

이날 美경제학계의 케인즈산맥을 이루는 巨峰 폴·새뮤얼슨교수(MIT大)는 뉴욕·타임즈紙기고에서「케인즈 經濟學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선언했다。

이에대해 새뮤얼슨교수와 맞서는 美통화주의학파의 泰斗 밀튼·프리드먼교수(前시카고大、현재 허드슨연구소)가무엇이라고 논평했을지 궁금하다。아마 잠꼬대같은 소리라고 일축했을지 모른다。

미국경제학자들사이에 케인즈經濟學은 70년대 오일·쇼크의 부상으로위대한 幕을 내린것으로되어있다。그러나 아직도 케인즈經濟學의 死活이 거론되고있는 것은 케인즈에 버금가는 케인즈이후의 經濟學이 등장하지 않았기때문이다。이래서 학계는「경제학의위기」「경제학의不在時代」라는손가락질을받고있다。

케인즈가 남긴 위대한 遺産은 30년대초반 대불황에서 자본주의경제를 구출한데 있을것이다。

케인즈경제학의 이론은 간단히 말하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디플레이션(不況)에 빠져 復元力을 상실할때는 정부가재정赤字를 감수하더라도 公共사업을 벌여、수요부족을 메워야 한다는것이다。

그의 理論은 그때까지 경기의 자기조절기능을 신봉해온 古典派경제학을 뒤집어 엎는「혁명적」인것이었다。그의 理論은 대공황을 해소한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의 理論的뒷받침이 되었고 그후 세계각국의경제정책의 모델이되었다。

그는 정책적인 역점을失業의 구제에 두었다。그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인플레이션과 정부간섭의 증대、특히 오일·쇼크이후 경기가 침체하는데도 물가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의 인플레이션) 현상앞에서는 전혀 無力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증대는 인플레이션만을 加重시키는 것이다。또한 그의 理論에서 정당성을 찾아온「큰 정부」(재정적자의 확대)는 체질화되어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 남아있다。레이건의 공급사이드경제학은 케인즈경제학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그러나 학계에서는 계속 庶子취급을 받고있다。또한 成敗도 아직은 未知數다。

요즈음 일부국가에서는 新古典主義의 전통을 이어받은 시카고학파의 通貨主義를 시도하고있으나 이것도 南美등지에서는 試行錯誤를 범했다。지금 파산에 직면한 칠레가 표본이다。우리나라경제정책은 전통적으로 케인즈理論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金科玉條처럼 들먹이는 총수요관리가 그한 예다。

그러나 예산의 경직성으로해서 통화정책을 보다유효한 정책방편으로 즐겨쓰고있다。요즈음미국경제학계에서는 서전트·루카스의기대이론(Expectation Theory)이 첨단 이론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아직 설득력이약하다。새뮤얼슨은 이 케인즈가 살아있다면 무슨 충고를 할까하는 反問도 묘안을 찾지 못하고있는 세계경제학계의 답답함을 대변하는것같다。

【李梓昇特輯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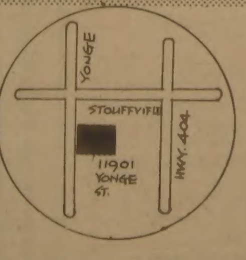
한인상공인협회 골프토나먼트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자　　격 : 상공인협회 회원을 우선권으로 하며 각 회원은 본협회에 관심이 있는 비회원은 1명씩 추천할 수 있음.

○일　　시 : 1983년 7월 11일(월) 오전 11시 30분

○장　　소 : SUMMIT GOLF & COUNTRY CLUB 11901 YONGE ST. RICHMOND HILL, ONT.



□참 가 비 : $50.00(디너포함)
※디너시 골프장규칙때문에 정장을 요함.

□참가인원 : 선착순 50명에 한함

□시　　상 : Gross 1, 2, 3등
Net A, B, C 각조 1, 2, 3등
Nearest, Longest, Honest

□연 락 처 : 함태호 ☎791-2276, 456-2976
송인문 ☎449-4499　　장해웅 ☎884-7783
정창헌 ☎275-3131

□골프장역사
▫71년된 온타리오의 역사적인 유물로써
▫Upper Canada 주둔군 사령관 본부
▫Timothy Eaton 여름휴양지
▫Horseback Riding Track
▫겨울 Country Ski

한인상공인협회

地下道·陸橋계단

너무 가파르다

50代여인 굴러 숨지기도

人體工學무시… 날림공사 많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곳곳에 있는 지하도 육교를 넘나들때는 정신을 바싹차려야 한다.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르거나 계단폭이 좁은가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계단끝에 붙이는 놋쇠가 없는곳이있는등 인체공학을 무시한날림공사가 많아 미끄러지거나 실족해서 다치는 사람이 많은것이다.

특히 노약자나어린이들, 하이힐을신은 여성들은 의지할 난간조차없어 엉금엉금 기어내려가듯해야 하는곳까지있다.

서울의경우 대표적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곳이 서울역앞 義州路지하도와 明洞성모병원앞육교.

서울中區蓬來洞1街12 義州路지하도에서는 지난달25일상오 행인 白鳳基씨(55·충남論山郡可也谷面含積里319)가 계단에서 굴러 숨진사고까지발생했었다.

이 지하도는 서울역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 시민들과 서울역을 빠져나온 인파등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특히 출퇴근시간이면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길이8m, 폭3.6m, 경사30도가량인 이 지하도 계단에는 난간도없을뿐더러 미끄럼방지용놋쇠가 닳아 오히려 미끄럼을 조장하고 있는형편이다.

또 연속된 12개계단마다 설치하게 돼 있는 쉬는 장소격인 「참」이 계단폭의 3배인 90cm정도여서 보행자의 관성(慣性)을 깨뜨리기쉬워 사고위험이 높게 시공돼있다.

이 지하도 청소원 金点玉씨(49·여)에 의하면 白씨가 추락사한날 하오에도 40대 남자가 이지하도 구 한진고속쪽 계단을내려오다굴러 머리에 상처를입기도했다.

이웃 鹽川橋앞 지하도도 난간은있지만 2개가 떨어져나가 버렸고 지하도바닥 양쪽에는 폭15cm가량의 배수구가 입을벌리고있어 역시 위험하다.

또 한국은행앞 지하도는 난간이없고 미끄럼방지놋쇠도 거의닳아 특히 비가오는 날이면 조심스레 발을내디뎌야한다.

明洞성모병원과 파인힐쪽을 잇는 육교는 사고위험이 높아 노약자들에게는 아예 기피당하고있다.

폭 1.5m에 경사 40도인 이육교를 내려올때면 어지럼증이 날 정도다. 오르기에도 숨이차는 이 육교는 참 전에있는 계단이 깎여 참이 없는것과 마찬가지여서 더욱 위험하다.

하루 통행인이 1백만명이나되는 鷺梁津역앞 육교도 출퇴근시간이면 계단을 내려서기가 무섭다.

높이 5m, 폭 1.8m정도인 이 육교에는 참이 19번째계단에 한군데만 설치돼있어 육교를 내려서든 한사람이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하루 통행인이 10만명가량되는 九老本洞 223-9앞 인도의 육교도 34개 계단이 있는데도 참이없어 첫계단에서 넘어지면 4·5m가량이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높다.

이육교 부근에있는 대도약국 주인 權五淵씨(49)는 『육교를 내려오다 발목을 삐거나 무릎이 깨져 찾아오는 환자를 자주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하도와 육교의 대부분이 공사비절감을 위해 직선형계단 일변도로 돼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도나 육교의 경우 S자형으로 시공하면 통행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참의공간도 넓어져 대형사고를 줄일수있으며 도시미관상에도 좋다는것.

현재 서울시내에는 각구청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 25곳과 지하상가업자들이 관리하는 23곳등 48곳이 있으며 육교는 모두2백5곳이다.

방재학전문가 李揆學박사는 공공시설물의 계단은 경사도가 45도를 넘지않아야하고 폭1·2m마다 난간이, 12계단마다 계단폭의 4~5배에 해당하는 참을 설치해야 안전하다고 지적하고있다. 【朴珍列기자】

◇할아버지의 曲藝 한 할아버지가 明洞성모병원앞 육교를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다. 이 육교는 현기증이 날정도로 가파른데다 계단폭이 좁고 미끄럼방지쇠마저 없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공무원 낀 도박단 적발

면사무소직원등 5명拘束·5명 수배

【忠州】충북忠州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벌여온 中原郡 老隱面사무소 산업계 직원 최병진씨(45)와 老隱面乃沙里 이장 최근홍씨(51)등 5명을 상습 도박혐의로 구속하고 淸州전매지청 김상은씨(45)등 5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3월 중순 忠州市 城內洞 D여관 210호실에서 한판에 5천원~5만원을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한것을 비롯 지금까지 20차례 노름을 해온 혐의다.

특히 乃沙里 이장 최씨는 忠州댐 수몰 보상금으로 받은 5천만원중 1천8백만원을 도박으로 날렸다는것이다. 【聯】

서울大 10年발전계획 立案

캠퍼스 포화해결등… 내년초 확정

서울대는 졸업정원제 실시로인해 학생수가 늘어나는등의 캠퍼스 포화상태를 해결하고 학문의 질적향상을 기하기위한 제2차10개년발전계획(84년~93년)을 입안, 늦어도 내년초까지 확정키로했다.

7일 서울대에의하면 이 발전계획은 학문연구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완비와 대학원중심교육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는 지난77년 제1차 10개년발전계획이 끝난뒤 지난79년제2차 장기계획을 마련했으나 그동안 교육개혁및 학내외의 상황변동등으로 유명무실했었다.

홍콩居住 한국여인 숙소서 被殺

【홍콩AP=聯】홍콩에 살고있는 한국여인1명이 7일아침 숙소에서 피살됐으며 경찰은 이 사건 관련2명의 한국인 남자를 연행 조사중이라고 홍콩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피살자의 신원을 양창수여인(41)이라고밝히고 연행된 사람들중 한사람은 양여인이 일하고있는 식당의 주인이며 다른 한사람은 이 식당의 요리사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식당주인이 경찰에서 3명이함께 사용하는 숙소의 문이 잠겨 부수고 들어가보니 양여인이 복부에 부상을입고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그옆에 요리사가 있었다는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墓地면적 調整검토

保社部

보사부는 7일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잠식현상(7일자 본보11면보도)을 해소하기위해 현행법정 묘지면적을 재조정하는등 묘지행정 전반에 걸친 문젯점을 검토,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현행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집단묘지내의 개인분묘는 묘역이30㎡(9평), 그밖의 개인묘지는 2배가 넘는 80㎡(24평)로 책정된 것은 현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묘지의 면적을 재조정하는문제도 검토할방침이다.

보사부는 오는 86년까지 화장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9월 묘지행정관계자를 파견, 우리나라와 생활풍습이 비슷한 동남아각국의 묘지제도를둘러보게한뒤 이를토대로 건설부·산림청등 관련부처와 협의키로했다.

보사부는 또 현재 장의차를 대형·중형차로 한정한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보고 소형차를 아울러 사용할수있도록 관계법규를 고쳐줄것을 교통부에 요청키로했다.

學術院 총회 회장에 沈鍾燮박사

학술원은 7일 총회를열고 회장에 沈鍾燮 전全北大총장을 부회장에 趙璣濬 전高大교수를 선출했다.

이번 선출된 회장은 금년7월9일부터, 부회장은8월25일부터 각각 2년간재임하게 된다.

◇신임 沈鍾燮회장경력 ▲미국예일大 대학원 석사 ▲서울大농학박사 ▲서울大농대학장 ▲全北大총장

◇신임 趙璣濬부회장 경력 ▲일본 上知大졸업 ▲高麗大 경제학박사, 교수 ▲高麗大 정경대학장

◇趙璣濬신임부회장

◇沈鍾燮신임회장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金振榮 감독 檢察로 送致

프로야구 三美슈퍼스타즈 감독 金振榮씨(47)가 구속5일만인 7일상오 서울지검 東部지청에송치됐다.

金감독은 이날상오8시 밤색바지에 옅은 베이지색 T셔츠를입고 초췌한모습이었는데 수갑을찬위에 포승으로 묶여 다른피의자 3명과함께 호송차로 東部지청에 송치됐다.

證券사고 관련자 5년간 再就業금지

증권감독원은 증권 온라인제실시이후 점차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증권사고의 예방을위해 예방검사체제를 강화하는등 사고예방종합대책을 수립,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천재지변 나면 먼저 支援부터

國防部, 보고는後에

국방부는 앞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날경우 각군 해당지역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지방관서와 협조 「선지원 후보고」체제를 갖춤으로써 각종 재난대책을 제때에 원활히 수행키로 했다.

尹誠敏국방부장관은 7일 각군에 이같이 지시하고 지난6일 발생한 雪嶽山화재의 진화작업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 지원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이에따라 육군은 이날하오 3시현재 1개대대병력과 헬기5대를 동원, 雪嶽山 화재진화를 도왔다.

533-2361

雪嶽山 큰불 26시간

強風타고 9ha태워

"連休중 등산객 失火인듯"

【束草】6일하오4시께 강원麟蹄郡北面龍垈里 설악산용아장성(해발1, 224m)五歲庵부근 원시림에서 산불이나 원시림9ha를 태우고 26시간만인 7일하오6시께 꺼졌다.

산불이난곳은 설악산소청봉에서 시작된 암벽지대가 구곡담까지 서북방향으로 3㎞나 뻗친 지역의 원시림으로 낙엽이 50㎝정도나 쌓여있는데다 초속6~7m의 강한바람이불어 쉽게 불길을 잡지못해 피해가 컸다.

불이나자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麟蹄경찰서, 중부영림서麟蹄보호구등은 공무원과 주민등 2백22명을 현지에투입했으나 산길이 험해 발화8시간만인 7일상오0시35분에야 현장에 도착한데다 위에서 바위가 구르는 위험이있고 6·25때 버려진 소총, 실탄이 간간이 터져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진화작업이 지연되자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7일 상오 군용헬기 6대와 산림청헬기 1대등 도합7대의 지원을받아 경찰관 2백50명, 군장병 5백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방화수를 공중살포해 불길을 잡았다.

설악산 관리사무소는 이번 산불은 지난 4일 입산통제가 풀린후 5~6일 연휴를 이용, 설악산에 입산한 등산객의 실화로보고있다.

관리소측은 처음 산불을발견, 신고한 대피소 관리인 이용모씨(50)에게 알렸던 천상현군(20·東草市中央洞3통6반)을 불러 목격경위를 듣고있다.

◇설악산 龍牙長城일대 소나무등 원시림이 타고 있다. 【聯】

宿直員 피살체로

東草 자갈밭서 흉기찔려

【東草】7일상오7시30분께 강원襄陽郡降峴面降山里1233의23 한국자원재생공사 東草관리소(소장 박영복)에서 혼자 숙직을하던 직원 김일팔씨(48·강원束草市東明洞15통4반)가 사무실에서 6백m떨어진 물치천변 자갈밭에서 목을 예리한흉기로 찔린채 숨져있는것을 이마을 조병학씨(63)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숙직을하던 김씨가 사무실에서 이곳까지 끌려와 살해당했고 도난당한 금품이없는것으로 미루어 평소 안면이있는사람의 원한에 의한 살인일것으로 보고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聯】

5선뉴스

◆멱감던 대학생 익사

【晉州】6일하오 5시께 경남 晉陽郡奈洞面三溪里 진양호 사천만 방수로에서 멱감던 慶尙대학교 생물교육학과 2학년 백승호군(21)이 수영미숙으로 익사했다. 【聯】

◆반달곰 고기10일 공매

【束草】束草市는 7일 공매키로했던 설악산 반달곰 고기 51㎏을 오는 10일 공매하기로 했다. 【聯】

종합大學 설치를 蔚山商議서 건의

【蔚山】蔚山상공회의소는 7일 蔚山市를 비롯한 蔚州·梁山郡등 동부경남지역에 종합대학을 설립해줄것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蔚山상의는 인구가 41만명인 馬山市와 21만인 晉州市에도 종합대학이 있으므로 80만이 넘는동부 경남지역에 종합대학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聯】

현충일「3百65日」

국립묘지 墓碑제작하는 李錫垠씨

"자기반성의 터전으로 삼아야"

현충일에 70만명이 참배했던국립묘지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발디딜틈이 없었던 참배인들도 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과거속으로 흩어졌다.

1년 열두달 3백65일을 국립묘지에서보내는李錫垠씨(55·사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대한 참배는 현충일이나 하는일이라고 참배후 돌아가는일에 들뜬사람들에 대해 나무람이 없지않다.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현충일이기때문이다. 벌써 24년째다. 묘비하나하나, 비문 한자한자 그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게 없다.

李씨는 59년 국립묘지와 첫인연을 맺었다. 부산大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다 재산을 날렸다. 할수없이 무작정상경, 당시 국립묘지 관리계장을 하던 형을 찾아갔다.

국립묘지에 들어서는 순간 영령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날린 자신을 꾸짖는것 같았다. 6·25때 학병으로 출전했다가 신병으로 전투한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내가 일할 곳은 여기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을 졸라 석비공장에 취직했다. 다행히 대학4년동안 서예를 틈틈이 익혔기때문에 도움이 됐다. 경내를 돌면서 비바람에 퇴색한 묘비의 비문을 다시 쓰곤했다.

62년부터 묵비가 석비로 교체됨에따라 그의 솜씨는 빛을 내기 시작했고, 그덕으로 자신이 회사까지 차릴수 있었다.

매일 43만평의 경내를 돌며 비하나하나를 살핀다. 옛날엔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젊은이들도 없지않았으나 요즘은 국립묘지를 찾는 태도가 많이 경건해졌다.

『국립묘지는 현충일에만 찾는 곳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제일의 성지가 돼있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사람이나 위선의 탈을쓴 사람은 참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곳에서 자기반성의 터전으로 삼아야한다고 충고한다. 【鄭在龍기자】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CHINA HOUSE Bloor Bathurst Bayview

GOLDEN CHINA 金國酒家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한인최초의
CUT FLOWER
도매상
오직 주문에 한합니다
주문일자 6월15일(수)부터
CUT FLOWER만 취급
(화초는 취급 안합니다)
철저한 신용과 친절봉사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Mr. 리)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636-0906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野生馬 濠洲를 잡아라

세계청소년축구 한국、8強고지놓고 내일한판

고른個人技… 예상외의 戰力

철벽守備… 과감한 攻擊으로 주도권 다짐

◇쓰러지며 善防 B조 가나와 뉴질랜드의 대전。뉴질랜드 골키퍼 피커링ⓒ이 가나공격진의 슛을 쓰러지면서 쳐내고있다。

【멕시코시티=安奉燦특파원】8강의 문을 열자。제4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청소년대표팀은 9일상오(한국시간)토루카에서 열리는 濠洲와의 예선 최종전을 앞두고 팀웍을 더욱 가다듬고 있다。

濠洲를 이겨야만 8강에 오르기때문에 한국선수단은 올오너딩(全部 아니면 全無)의 신념으로 경기에 임하고있다。

한국은 스코틀랜드와의 예선A조 첫경기서 0-2로 패하여 8강진출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었으나 홈그라운드의 멕시코를 물리침으로써 8강도약을 향한 숨통을 트게 되었다。

체격이 좋은 濠洲는 당초 예선 A조에 속한 4개팀 가운데 가장 약한 팀으로 지목되었으나 뚜껑이열리자 만만치않은 전력을보이고 있다。

濠洲는 멕시코와의 경기서 전반 0-1로 리드당하다가 후반 중반에 프랭크·파리나의 헤딩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우승후보로 지목된 강호 스코틀랜드와의 대결서는 파티카스와 인카탈루포의 득점으로 2-1로승리、이변을 일으켰었다。

濠洲는 14개월전에 대표팀을 구성、매달 7일간 합동훈련을 했고 상당한 해외원정경험도 갖고있다。선수전원의 개인기가 고르고 수비진이 거친 태클을 구사하고 있다。14명의 선수가 濠洲1부리그소속으로 뛰고 있으며 게임이 거듭 될수록 잘 뛰고 있다。

멕시코와 스코틀랜드 경기에 모두 출전한 濠洲선수는 순발력이 뛰어난 GK 프랑켄을 비롯하여 마이어、스튜어드、다코스、파리나、파티카스、브라운、로웨、인카탈루포、블리에스트라등 10명인데 인카탈루포와 파티카스를 한국선수단에서는 위협적인 공격수로 보고있다。

濠洲는 對스코틀랜드전에 기용했던 선수를 그대로 투입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朴鍾煥감독은 9일 濠洲와의 경기에 대해『만만치않은 상대이긴하지만 멕시코보다는 쉬운상대로 생각한다。必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한국선수들은 컨디션이 매우 좋다。吳完建한국팀단장은『수비진은 악착같이 물고늘어져야하며 공격위주의 플레이를 펼쳐 주도권을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선수들은 실력이 노출되지않은 선수 2~3명을 對濠洲전에 기용할 움직임도 보이고있다。

우루과이 8強先着

【멕시코시티=安奉燦특파원】7일 새벽(한국시간)열린 제4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예선리그 5일째 경기에서 예선B조의 우루과이는 강적 폴란드를 3-1로 꺾고 2연승을 기록、이대회참가16개팀중 가장먼저 8강전에 진출했다。우루과이는 후반서 연속 3골을 따냈다。

B조서는 9일 열리는 폴란드와 美國의 대전 승자가 B조 2위로 결선에 나갈것으로 예상된다。

◇제5일전적

▲B조

우루과이 3-1 폴란드
(2승) (1승1패)

▲D조

브라질 3-0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3-2 소련

主審 구타선수 4명 出戰정지

【멕시코시티AP聯合=特約】국제축구연맹(FIFA)은 7일 징계위원회를열고 제4회 청소년축구대회 예선 B조경기에서 경기주심을 구타한 아이보리코스트의 루시앙·카시선수에게 1년간 국제대회출전 정지처벌을 내리는 한편 3명의 선수도 2게임출전을 정지시켰다。

아이보리코스트팀은 6일 미국과의 대전서 고의적으로 거친 플레이를 펼쳐 미국선수 여러명에게 부상 당했으며 아이보리코스트 선수들은 주심의 퇴장명령에 항의、난동을벌였었다。

FIFA로부터 징계된 4명의 선수들은 우루과이와의 경기에 나가지 못한다。

뉴질랜드、가나제압

대통령盃국제축구 한국은 전날 泰완파

수세에 몰리던 뉴질랜드가 경기종료 6분을 남기고 두골을 터뜨려 아프리카의 가나를 제압했다。

7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제13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4일째 B조경기에서 뉴질랜드는 39분 FB 허버트의 슛으로 선제점을올린후 3분후 FW 터너가 한골을추가、2-0으로 가나를누르고 1승1패를기록했으며 가나는 2패로 결승토너먼트진출이 어렵게됐다。

한편 전날 水原 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A조경기에서 한국은 李相龍·盧仁鎬의 슛으로 두골을 선제한후 후반에 두골을 추가、泰國을 4-0으로 대파하고 패조의 2연승을 기록했다。

뉴질랜드와 가나의 대전서 검은 돌풍은 일어나지 않았다。가나는 개인기와 주력·패스등이 뉴질랜드보다 우세했으나 문전에서의 결정타가 터지지않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승부에는 졌다。

후반30분까지도 게임은 가나의 페이스였다。문전까지 신나게 대시했지만 득점을 올리지못했고 10여분을 남기고는 가나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져 볼은 하프라인에서만 맴돌았다。체력이 강한 뉴질랜드의 강점이 이때부터 나타났다。

6분을 남기고 HB보스가 왼쪽에서 코너킥한 볼을 FB 아담이 FB 허버트에 패스、허버트가 슛、결승점을 올렸다。

◇제4일전적

▲B조

뉴질랜드 2 (2-0, 0-0) 0 가나
(1승1패) (2패)

◇제3일전적

▲A조

한국 4 (2-0, 2-0) 0 태국
(2승) (1무1패)

"경기장 暴力 영구추방"

프로야구 6개球團主 결의

프로야구 6개구단주들은 7일하오 최근 三美金振樂감독의 구속을 몰고온 경기장 폭력사태에대해 국민들 특히어린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런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것을 다짐했다。

이날하오 2시 한국야구위원회 徐鐘喆총재실에서 모임을 가진 구단주들은 앞으로 이런불미스런사태가 재발할경우 직위、이유를불문하고 프로야구계에서 영구추방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것을결의했다。6개구단주의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기장의 불상사에 대한 국민들、특히 어린이팬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한다。②이번 사태를 계기로 창단당시의 의욕과 사명감을 되살려 경기장 질서를 바로잡고 사랑받는 프로야구가 되도록 한다。③앞으로 경기장 폭행이 재발할경우 직위、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프로야구에서 영구추방하는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

MBC 감독에 金東燁씨

白仁天전감독 선수로만 뛰어

MBC청룡은 40여일째 공백상태에있는 감독에 金東燁전 해태타이거스감독(44)을 임명했다。신임金감독은 9일 蠶室운동장의 對三美전부터 그라운드에 나선다。

한편 팀성적부진등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있던 白仁天감독겸선수는 앞으로 선수로만 활약、곧 팬들앞에 모습을 나타내게됐다。

지난4월 白감독을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퇴진시켰던 MBC는 새감독물색에서 그동안 魚友洪 東亞大감독과 교섭을벌였으나 본인이 극구 사양、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金감독은 지난해1월 해태 타이거스 창단때부터 코칭스태프의 불화로 3개월만에 팀을떠났었다。

浦鐵工「철방망이」위력

청룡기高校야구 강호 仁川高에 7회콜드勝

浦鐵工高의 방망이가 또 다시 우승후보 한팀을 떨쳐냈다。

특히 매대회첫대전서 방망이가 잘터지기로 소문난 浦鐵工은 청룡기야구 선수권대회 仁川高와의 첫경기서 3루타1、2루타6개를 포함한 18안타의 장타력을 과시하며 12-3、7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금년도 고교 정상급으로 꼽히는 仁川高의 우완정통파 朴相範은 6회까지 15안타를 맞고 물러났다。이날 浦鐵工 4번 康昌武는 4타수3안타에 4타석 연속 타점을 올리며 6번金順源도 4타수3안타3타점을올렸다。

6회까지 10-3으로 리드하던 浦鐵工은 7회초구원등판한 仁川高 卓明烈을 3번 崔海明의 3루타등3안타로 공략、2점을 보태 콜드게임을결정지었다。

◇제4일전적 (7일·서울운)

◆고등부2회전

포철공	302	032	2	-12
인천고	001	110	0	-3

〈7회콜드게임〉

▲홈런=蔡星煥(5회·인천고)

◆중등부 2회전

배재중	000	000	0	-0
동대문중	100	000	×	-1
상인천중	010	100	0	-2
강남중	003	000	0	-3

佛테니스界에 검은突風

37년만에 佛오픈대회 우승…黑人선수 야니크·노아

野性적힘으로 세계의 強豪 차례로눌러

작년엔 데이비스컵 準優勝 선봉장역할

海外스포츠話題

◇프랑스 오픈서 우승、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야니크·노아。

전통의 롤랑·가로테니스대회(프랑스주최)는 금년처럼 세계적인 주목속에 역전의 돌풍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세계최고의 스타들이 고루 참가한 이프랑스오픈은 야성적힘을 바탕으로한 프랑스 흑인선수 야니크·노아(23)가 우승、프랑스인으로서는 37년만에 롤랑·가로컵을 안았다。

1m93의 흑인장신선수 노아는 사상처음 미국NBC·TV까지 직접중계에 나선 결승전에서 작년우승자 마츠·빌란데르(스웨덴)를 3-0으로 꺾었다。

빌란데르가 마지막 친볼이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노아는 하늘을 우러러 본 다음 네트를 뛰어넘어 환호하는 2만관중을향해 열광했다。파리프로축구선수 출신인 카메룬人아버지 자체리도 코트로 뛰어나와 아들을 껴안으며 감격했다。1946년 마르셀·베르나가 우승한이래 37년만에 야니크·노아는 눈물과땀이 범벅된 얼굴로 롤랑·가로에서 춤을춘것이다。미테랑 대통령이『프랑스테니스를 선양한 노아의 빛나는 우승』에 즉각 축하 메시지를 보낸것도 무리가 아니다。72년에는 노아의 누이와 결혼한 패트릭·프로이시가 결승까지 올랐으나 스페인의 안드레·기메노에 패했고 이후 아무도 결승문턱에 다가서지 못했다。

노아는 수십년간 우울증에 빠져있던 프랑스테니스의 르네상스를 위한 선봉장임이 틀림없다。

지난해에는 프랑스를 데이비스컵대회 준우승까지 이끌었고 올해도 8강에 올라있다。

노아는 이번대회 우승까지 이반·렌들(체코)에 단1세트만 내주는 무서운 저력을 과시했다。

프랑스오픈은 한동안 윔블던、US오픈、호주오픈의 3대선수권전에비하면초라한2류대회에머물러왔다。상금도 10만달러를 넘지 못해 세계적선수들은 물론 프랑스TV까지 외면했다。금년대회가 갑자기 활기를 맞이한것은 프랑스테니스연맹회장 필립·샤트리에르의 현대화계획이 결실을 보았기때문이다。

10년만에 지미·코너즈가 찾아온것을 비롯하여 존·매켄로、이반·렌들、길레르모·빌라스、크리스·에버트·로이드、하나·만들리코바、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등 2백54명의 최고수준선수들이 운집하여 2주간 벌어진 83롤랑·가로는 파리의 5월처럼 햇빛을 만났었다。

비외른·보리도 TV해설가로 찾아왔다。

프랑스연맹은 금년에 상금액수를 윔블던의 1백60만달러를 바짝좇는 1백30만달러로 올리고 참가선수의 호텔、교통、식사、연습까지 무료로 서비스하는 유인책을 썼다。

또 좌석 1만5천짜리구장을 하나 더 만들고 레스토랑과 바를 차려 롤랑·가로를 기분좋은 테니스촌으로 바꾼것도 적중했다。【파리=安炳燮특파원】

길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는 그뜻이 다르다。지식은 사실 그 자체를 아는것을 의미함이요、지혜는 그아는 지식을 옳게 쓸줄아는것을 의미한다。이 두가지가 인간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것은 두말할여지가없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인간생활에 큰유익을줄수도 있으나 그반면에 이를 잘못쓰면 전인류가 크게 참화를 입을 가능성도 많다。그러므로 지식이 팽창한 이20세기야말로 이것들을 옳게 쓸만한 지혜가 우리인류에게 필요하게되었다。분명한것은 이러한 지혜는 실험실에서는 얻을 수없다。성경은 선언한다。「여호와를 경외하는것이 지식의 근본」(잠언1:7)이라고。과연 그러하다。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이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써 행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지식을 바로 쓸수있는 지혜를 얻을것이다。

◇韓景職◇

땅끝에서오다 <77>

金成一 作

침묵하는 글자들 ①

KE 901은 DC10 비행기였다。보잉 747이 19만4천마력(馬力)인데 비해서 DC10은 12만3천마력、승객 좌석도 2백50석이어서 규모가 747보다는 작은 편이었다。담배를 끄고 좌석벨트를 매라는 지시등이 켜져있었다。엔진을 시동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스튜어디스들이 통로에 나와서 구명대와 산소마스크 사용하는 법을 시범하고 있었다。

준호는 브리프케이스를 열었다。

『아』

문 영실에게 돌려주지 못한 이 세원의 물건이 아직 한가지 남아있었다。바로 그 낡은 가죽 뚜껑의 바이블이었다。서류 봉투는 브리프케이스에 들어 있지않았다。역시 이 세원의 수법대로 수트케이스에 넣어서 바로 트리폴리까지 가도록 붙여버렸던것이다。

준호는 바이블을 꺼내어 앞의 시트포키트에 찔러 넣고나서 브리프케이스를 좌석 밑에 넣었다。

스튜어디스가 돌아다니며 좌석벨트를 점검하고 있었다。준호는 벨트를 매고 나서 주머니를 더듬거렸다。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다。노란 색의 텔렉스 용지였다。

그는 이제 아주 눈에 익어버린 이 세원의 수수께끼 같은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SA530807 LK2226 PR0913

071920 COS0605 KL4206371

7PS2219 SWL

도무지 무엇을의미하는 숫자들인지 알수가 없었다。숫자의 단위들이 모두 틀리는 것으로 보아 어떤 서류나 항목의 넘버들은 아닌것 같았다。그렇다면 암호(暗號)일텐데 준호가 알고 있는 암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것이다。

준호는 암호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늘 추리 소설을 즐겨 읽었기 때문에 암호의 전형적인 패턴을 몇가지 알고 있었다。

본래 암호란 글자를 숫자나 부호로 표시하여서 특정한 사람외에는 그 뜻을 알아볼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암호는 특정한 개인 사이에 사용하는 것과 군대나 첩보대와 같이 어떤 단체나 조직이 사용하는것이 있었다。대개 전자의 경우에는 그 해석방법에 일정한 룰이 있게 마련이어서 그것을 기억하기는 쉽지만 전문가에게 걸리면 쉽게 해독되어버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후자의 경우에는 조직의 전원이 그 해독의 사전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대개 추리소설등에 나오는 암호가 전자의 것이요、예컨대 북한방송이 자정만 되면 불러주는 다섯자리 숫자같은 것이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

추리 소설에서 암호를 처음 사용한 것은 에드거·앨런·포였을 것이다。그는『황금 벌레』에서 괴상한 숫자로 나열된 암호문을 발표하였는데、그는 암호문 속에 나오는 숫자나 부호들의 수를 세어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정리해 가는 방법을 써서 암호를 푸는 묘미를 가르쳐 주었다。

예를 들어서『황금벌레』에 나오는 암호문에는『8』33회、『;』26회、『4』19회……등의 순서로 부호의 빈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張吉山 <1761>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21)

黃晳暎 作

『글쎄 소문이 아니라 큰변이 벌써 일어났네。어제 주대천이가 찾아와 활방은 양주 방면이라더니 오늘은 또한 양주서 보냈다는 이서방이란 자가 와서 군장을마련하여 서울로 쳐들어 간다는 것일세。송계망이가 그러는데 양주서 일단모였다가 한양에 입성한다는군』

『음、하여튼 우리네가 섣불리 나설 일은 아니고 돌아가는 형편을 잘 살펴두세』

여하튼 그때까지는 관가에서도 천변대우가 있을것이라는 허황한 소문에는 접하였으되 거병 입성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비록 하리배와 아전들이 그런소문을 들었어도 하도 엄청난 노릇이라 감히 고변도 못하였다。

인근 백성들은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으나 다시 뒤늦게 당도한 이들은 더욱 늘어나서 대전리에는 시내 비골 사람들이 쳐놓은 멍석 차일이 수십군데나 되었고、주먹밥도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다。실상 시내 비골의 동원책임을 맡았던 방귀선이나 영평일을 맡아 양주를 모두 지휘 하도록 되어있던 정원태같은 이는 이대로 양주목을 급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다른 지역의 병력 동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무모한 생각이었다。그날 밤이 되어서야 해서의 평산에까지 나갔던 기병 정대성이 급히 돌아왔다。양주에서의 전통은 그대로 전하였으나 시행이 착오없이 이루어질는지는 아직 모르는 노릇이었다。불안한 가운데 십사일 밤을 넘기고 선진이 출발하기로 되었던 보름날이 되었다。

칠성암에서는 입경 준비로 부산하였다。간밤에 혜음령과 파주를 거쳐서 전갈하고 돌아온 최영길은 환도 군복 등속을 여러 짐으로 나누어 꾸리고 있었다。정대성은 이틀간 왕래한 피로때문에 황회가 급히 깨울때까지 잠들어 있었다。여환은 원향이 전립 쓰고 전복을 입고 나선 모양을 보고 말하였다。

『당신이 용녀부인의 표적이 될것이라 노중에서 백성들을 만나면 엄숙한 기색을 보여야 하오』

『염려마세요。입경한뒤에 훈련원이 점령되면 제가 앞장서서 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갈거예요』

황회가 재촉하였다。

『종사、어서 출발합시다。대전리에서 지체될지두 모릅니다』

마당에는 안장에 온갖 색실과 치장을 올린 호마가 준비되어 있었고、원향이 올라 앉으니 태도는 엄숙하고 위의가 있었으며 가히 사해용왕의 딸이며 여장군이라 할만 하였다。

여환 황회 원향 최영길 오경립 정대성 그리고 계화의 남편 박수 김승운이함께 출발하였다。그들은 바로 대전리 오거리로 나갔는데 하얗게 모여든 군중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자 환호하며 길을 비켜 주었다。군중들틈에서 김시동과 정호명 정만일이 나왔다。여환은 시동에게 물었다。

『모두들 천변을 기다리고 있소?』

『예、어제까지는 황방으로 피해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양에서 변이 일어나면 기다렸다가 입경하여 재화를 차지 한다거나、공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고있는 모양이우』

City of Toronto

부동산세 납부자에 알림

지금쯤 여러분은 모두 부동산세 최종고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못받은 분은 가급적 속히 전화 947-7115로 문의, 또는 Tax Collector, City Hall, Toronto M5H 2N2 앞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시청 1층의 세금문의처를 찾아 가십시오.

고지서를 못받은 분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83년도분 4개 고지서의 납부마감일은 6월15일, 7월15일, 8월15일, 9월15일입니다.

세금납부처는 월~금 상오8:30-4:30 사이에 시청에, 또는 시중은행이며 시청으로 우송해도 됩니다. 수표작성은 "The Treasurer, City of Toronto" 앞.

세금은 빨리 내십시오: 여러분의 세금은 토론토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서비스나 시설에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는 초·중고교, 소방소,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공원손질, 도로건설 및 보수같은 토론토시 사업, 또한 경찰, 사회복지, 어린이 보호, 앰뷸런스 서비스 같은 메트로·토론토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G. H. Clarke
재무국장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8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6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600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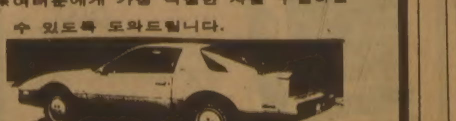
□가수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전 11시~새벽 1시
금~토: 오전 11시~새벽 2시
일 : 오후 1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외훈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選擧區 8~10개 增設검토

政府·與黨 곧 조정작업 착수

人口증가·行政구역개편 따라 85년 百萬이상 지역

정부와 民正黨은 인구증가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선거구를 일부 分區增設하는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곧 검토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한 소식통은 『불필요한 정치 過熱을 방지하기위해 벌써부터 선거구조정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시기는 아니나 언제가는 연구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에비 조사는 해두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재조정의 검토대상이 될수있는 지역구는 인구증가 추세로보아 85년 12대선거에 가면 1백만명수준을 突破 또는 육박할것으로 보이는 서울·釜山등 대도시 일부와 대도시인접지역구등의 8~10개區로 알려지고있는데 일부지역은 이미 행정구역을 개편한바있다.

그런데 재조정 검토대상이 될수있는 현70만명이상의 선거구로는 서울의경우 제2선거구(麻浦·龍山)제4(東大門)제6(道峰) 제7(西大門·恩平)제14선거구(江東)등 5개이고 釜山의 제4선거구(東萊) 京畿의 제6선거구(安養·始興·光明·甕津) 慶南제2선거구(蔚山·蔚州)외에 11代總選직후인 81년7월1일 直轄市로 승격하면서 仁川市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大德郡儒城邑등을 편입시킨 大田東區등이 거론되고있다.

이들 區의 인구증가추세를보면 서울東大門區의 경우 81년11代總選당시 85만9천명이었던인구가 83년4월말현재 90만명을 돌파 백만명에 육박하고있으며 83만명이었던 西大門·恩平區도 9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두선거구는 85년총선때 모두 1백만명을넘어설것으로 보고있다.

또 11代總選때 79만2천명이었던 麻浦·龍山區와76만1천명을 헤아렸던 道峰區도 각각 83만~85만명으로 이미늘어났고 11代총선때 分區되었던 江東區는인구증가속도가 가장빨라 54만명(分區당시)이 70만명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올림픽타운이 건립될예정이어서 장차 인구가 급증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東大門區에서 泰陵區를, 道峰區에 牛耳區를 각각 신설하는문제를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렇게될 경우 현재 2개의區가 1선거구를이루고있는 麻浦·龍山, 西大門·恩平도 分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釜山 東萊區는 11代선거때 67만5천명이었던 인구가 73만명으로 늘어나 金井區의 신설을 검토중이며 蔚山·蔚州도 52만명의 인구가 67만명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蔚山市는 40만명미만의 인구가 急增, 50여만명에 달해 區廳制의 도입이 제기되고있다.

安養·始興·光明市는 11대총선당시 56만7천명이 현재 70만명에 이르고있는데 이 선거구에 포함되어있는 경기도 果川출장소와 半月출장소가 금년에 市로 승격될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85년에는 80만명을넘을것으로 보고있다.

1區2人선출의 現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는 9代의 73개가 10代에는 4개가늘어 77개가되었고 11代에는 15개가 늘어 현재는 92개區이다.

◇검토 대상지역

서울	제 2	麻浦·龍山
〃	제 4	東大門
〃	제 6	道峰
〃	제 7	西大門·恩平
〃	제14	江東
釜山	제 4	東萊
경기	제 6	安養·始興·光明·甕津
경남	제 2	蔚山·蔚州
大邱		
仁川		
大田		東區

오늘 3黨총무 회담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은 7일하오 총무회담을 열고 제1백17회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했다.

李鍾贊 民正, 林鍾基 民韓, 李東鎭 국민당 총무는 회담에 앞서 6일 상오 접촉을 갖고 임시국회소집의 쟁점이 되고있는 회기문제와본회의對정부질문議題등을놓고사전절충을벌였다.

특히 3黨총무들은 최근의 政局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다는 야당측주장을 놓고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총무들은 이번 국회를통해 모든문제를 국회로수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소집시기나 會期, 본회의 對정부질문 문제등 구체적인운영방법에서는 異見을 보이고있어 7일 회담에서도 논란이있을 것으로보인다.

社會漫評

기념촬영…

中共 6기全人代개막

새國家주석에 李先念확실

◇全대통령이 농민들과 모심기를 하고있다.

【北京=UPI聯合】 중공의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의회) 제1차회의가 지난3월 새로 선출된 2천9백78명의 대표(대의원)들이 전원 참석한가운데 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6일 개막됐다.

모두 17일간에걸쳐 열리게될 이번 제6기全人代는 지난해말 채택된 재헌법에 따라 지난14년간 폐지됐던 국가주석직을 부활, 새국가주석을 선출하는 한편 최대내정문제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을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회의첫날인 6일에는 5기 全人代상무위副위원장 彭眞의 개막연설에이어 수상趙紫陽이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적인 중공의 국내문제와함께 그간의 對美, 對蘇및 對제3세계문제등에관한 국정보고를했다. 이어 7일에는 姚依林부수상이 83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관해, 그리고 王丙乾재무상이 82년도 국가재정상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회의 후반부에 선출될것으로 보이는 새국가주석에는 李先念부주석(78)이 확실시되고있으며 실권자인 鄧小平(79·고문위주임겸 黨군사위주석)은 신설되는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임, 軍에대한 지휘권을 강화할것으로보인다.

이밖에 全人代상무위원장직에는 彭眞이 승진되고 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에는 鄧穎超(81·周恩來미망인·당정치국원)가 설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全대통령, 충남天原서모내기

全斗煥대통령은 顯忠日인 6일 忠南天原郡成歡邑新防里에서 마을주민 40여명과 함께 농촌일손을 도와 모를 심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약1시간동안의모내기작업을끝낸뒤 들판에서 미리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朴鍾汶농수산부장관등 수행원, 마을주민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國力길러 위협극복해야"

全대통령, 顯忠日 추념사서 강조

全斗煥대통령은 6일『우리의 국력이 강하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對內外의 도전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우리의생존과 國權을 유린당하는 비극은 얼마든지 막아낼수있을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각자가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완수하는가운데 어떠한 위협과 시련도 능히 극복할수 있는 막강한 국력을길러 아무도감히 우리를 넘볼수 없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국립묘지에서 있은 제28회 顯忠日추념식에서 金相浹국무총리가 대신읽은 追念辭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렇게하는 일은 우리의 先人들이남겨준 숭고한 遺德을 길이받든는도리이며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것』이라고 밝혔다.

民怨 이래서 생긴다

서울市 종합민원실 運營결과

소극적 자세
形式的 처리
約束 불이행
法規 未備
서비스 부족

서울시는 6일 행정기관이 민원(民怨)을사는 주요원인을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자세 ▲우리한사업계획 ▲형식적인 민원처리와 약속불이행 ▲법규미비 ▲시민요구증대에따른 행정서비스 부족등 5개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종합민원실을 1년동안 운영한결과 이같은 결론을얻고 각종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한 성찰(省察)의 자료로 삼기로 했는데 이는 전국각급행정기관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대민행정의 고질적민 병폐가 아직도 여전하다는것을 뜻했다.

서울 시민들이 민원발생요인중 첫째로꼽는 소극적인 민원처리자세는 공무원들이 감사등 사후조치를 지나치게의식한 나머지 소신있는 결정을 내리지못하는데다 지나친 「공익우선관념」 때문에 민원처리가 경직된다는것이다. 그때문에 대민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법규정을 편협하게해석, 민원발생이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

그다음으로 지적된 요인이 부수대책없는 사업계획수립. 하부기관에 무리하게 중요업무를 넘겨 충분한 관계법규 검토, 여론수집,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없이 개발사업을시행해 엉뚱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

세번째는 형식적인 민원처리및 시민들과의 약속불이행, 몇해를두고 같은문제에대해 같은답변으로 일관하는가하면, 시민들의질의에 성의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회답하거나 엉뚱한회답을 보내는 착오도 일어난다.

네번째는 법규정완화 및 단속법규미비. 관계규정이 너무완화돼 환경문제에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단속법규미비로 여관·사우나·전자오락실·빽탕집등 문제업소단속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민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욕구는 늘어나는데 행정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도 5번째 요인으로 분석됐다. 높아진 시민욕구를 채워주려면 당연히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과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도 미흡하기만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눈에 비친 시민상도 밝지만은 않다.

관(官)에서 하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지나친 관의존 습성이 그대로 남아 초법률적사항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신체불구등 특수여건을 내세워 특혜를 요구하는 「억지」도 다는 의식을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자료를 근거로 민원처리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간 반복될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문제점을찾아내 법규개정등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는 행정예고제를 확대하고 공개행정을 지향해야하며 모든행정의 법령에대한절차를 엄격히 지켜야한다는것. 마지막은 시민에대한 약속은 꼭지키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하며 무분별한 약속을 남발하지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지난 1년간 서울시청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시민들의 일반민원 4만1천7백18건과 시공무원들의 견문보고 6만2천2백98건등 모두 10만4천16건의 민원이접수됐는데 이중 일반민원의 내용은 ▲불편부당사항을 시정해달라는 것이 전체의 38.3%에 해당하는 1만5천9백83건이었으며 행정절차에대한 질문및 상담이 57.3%인 2만3천 9백27건으로 집계됐다.

地平線

모든 것을 「법」을 통해서 보고 생각했던 로마사람들은 전쟁도 그렇게 봤다. 『전쟁에서는 법도 무효가 된다』는 것은 기원전1세기 로마의 지식인 키케로의 말이다. 그러나 동양에 사는 우리는 杜甫의 감상적인詩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나라가 깨어지니 산과흐르는 물만이 보인다』고해서 「國破山河在」라고 杜甫가 한탄했던 것이다. ▼33년전의 그날도 지금처럼 더운여름철이었다. 6월25일 — 어제까지 「평화」를 외던 金日成은 탱크를앞세우고 38선을넘어 물밀듯 밀어닥쳤다. 3년1개월 동안의 처절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杜甫가 목격했던 전쟁은 활과 창과 칼의 전쟁이었으니, 나라가 깨어져도 산과물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20세기후반엔 산과물도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했다. ▼53년4월이라면 휴전을 석달 앞두고 한뼘의 땅을 위해 희생을 마다할수 없는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李得九씨가 태어난 것은 이때였다. 태어난지 1백일만에 아버지는 楊口전투에서 전사하고, 어머니는 떠나버렸다고한다. 그러나 이 전쟁고아는 30여년의 가시밭길을 헤맨 끝에 이제 어엿한 「전파사」의 사장이 됐다. ▼姜今子씨는 6·25가 남기고간 그 숱한 「미망인」의 대표적인 경우였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3남2녀를 기르는동안의 고초는 벌써 한세대전의 얘기가 됐다. 3남2녀는 이제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엿한 시민이 됐지만, 그동안의 고초는 아무도 보상할수 없는 이민족의 비극이었다. 얼굴과 손발이 갈라져 피가 맺히는 고난길을 헤매기 10년이었다한다. ▼목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상이용사를 평생 보살피기로한 全慶分씨와, 두개골결손의 상이용사의 손발이 되고있는 孔今分씨, 그리고 양쪽 다리를 못쓰는 沈永仁씨의 용기와 투지는 그자체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드라마라고 할수있다. 제10회째인 「한국원호대상」 수상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야했던 파란과, 그속에 핀이름없는 봉사와 희생의 꽃들을 생각하게된다.

10회 한국 援護大賞 受賞者 결정

社告

13일 본사 12층강당서 施賞、賞金 60萬원씩

원호의 달을 맞아 한국일보사제정 「한국援護大賞」 제10회 수상자 다섯분이 결정됐읍니다.

영예의 수상자는▲傷痍軍警부문沈永仁씨 (42·경기安養市飛山洞 주공아파트103동204호) ▲遺族부문 李得九씨 (30·서울 道峰區水踰1洞472~58) ▲未亡人부문 姜今子씨 (64·전북 全州市德津洞1街436~9) ▲重傷痍者妻부문 全慶分씨 (28·仁川市南區間石洞 주공아파트46~204) 와 孔今分씨 (33·경북 迎日郡松羅面地境里32) 입니다.

한국일보사는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몰군경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遺志를받들어 굳세게 살아가는 미망인과 유족 그리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肢體를잃은 상이용사와 이들을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배우자들의 자립의지를 격려하고 이들을 돕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74년부터 원호처의 협찬을 얻어 「한국援護大賞」을 10년째 운영해 왔읍니다.

이번 제10회 大賞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13일상오11시 본사12층강당에서 거행되며, 수상자들에게는 60만원씩의 상금과 부상품및기념품이 수여되고 정부포상자들과 함께 총리실예방등 각종 공식행사에 초대됩니다. 시상식이끝난뒤에는 본사 13층특실에서 수상자들을위한 본사주최 오찬회도 있읍니다.

불굴의 의지로 자립을이룩한 이들 수상자들에게 독자여러분의 뜨거운격려를 기대합니다.

◇심사위원= ▲위원장 金鍾煥 (재향군인회회장) ▲위원 尹宗鉉 (본사논설고문) ▲〃 金亨植 (원호처원호국장)

상이군경	沈永仁씨
遺族	李得九씨
미망인	姜今子씨
重傷痍妻	全慶分씨
	孔今分씨

한국일보社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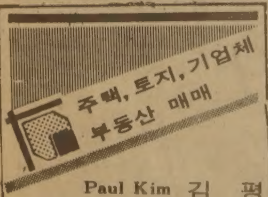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3107 Sheppard Ave. E.
M1T 3J7
Phone : 497-9794
(R)759-4560

씨올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여름학교 안내

●신청처 : 150 Madison Ave. Tor. M5R 2S5 ●학교장소 : 250 Brookdale Ave. John Wanless 학교

— 데이케어 프로그램 —

▲연령 : 3~4세
▲기간 : 7월4일~8월26일(8주간)
▲시간 : 오전8시~오후6시

금년 처음으로 3,4세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써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국인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영어의 환경(유치원)에 준비과정 없이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 심리현상에 큰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영어도 가르치며 한국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려는 것이 이번 탁아소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Superviser Diane Morris씨를 모시고 영어교사1명, 한국인교사 3명으로 32명의 어린이들을 받아드리겠읍니다.

1주에 $50(간식포함, 점심은 각자준비)

▲신청 : 원하는 주일을 기입하셔서 수표와 동봉, 위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받겠읍니다. ▲ CHARTER WAY BUS SERVICE 가능하며 주당 25불.

▲ 부모 경제능력에 따라 정부에서 수업료 일부 보조 가능 합니다.

— 국민학교 프로그램 —

▲연령 5세~12세

▲한국어 : 무료, 한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여름학교입니다. 10년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진과 토론토교육국의 보조로 이루어집니다.

▲특수프로그램 : 한학생이 두과목을 택할 수 있음.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축구 등 8과목에 전문교사진이 지도함.

▲수영 : 일주일에 2번씩 토론토교육국, 또는 시경영 수영장에서 모두가 수영을 즐길 수 있음.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 30분
▲야외활동 : 운동회, 소풍, B.B.Q., 졸업파티등을 통해 즐거운 금요일을 보냄.
▲수업료 : 한학생 $180, 둘 $350, 셋 $500,
▲ 아동 안전을 위해서 전문통학 버스인 CHARTER WAY BUS SERVICE를 이용합니다.
신청 441-2986, 6월 20일 까지,
한 학생 $150, 둘 $290, 셋 $400.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 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 중학교 프로그램 —

▲연령 Gr. 7~Gr. 10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한국어와 Band : 무료, 오후1시-3시30분, 자녀들이 흥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밴드부를 신설하였음. 악기 렌트비 $20
▲특수프로그램 : 과목당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음. 한교실에 4-10명 제한.
▲컴퓨터 (Commodor64 디스크, 프린터 모두 준비되어 있음) 지도교사 박홍길 $140
▲불어회화 : Mr. Desjardins $140
▲영어엣세이와 Public Speech : Dr. Rinaldi $140
▲수학 : Mr. Burwell $140
▲음악이론 : Mr. Kerwin,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Preliminary 또는 Gr. I $140
▲학생이 4명 이하일땐 과목취소
▲두과목을 택할땐 $250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한국어와 예능의 전당

씨올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PLO끼리 流血戰

아라파트에 反旗 4명死亡 10여명負傷

【베이루트AFP·聯合=聯合】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 야세르·아라파트의 정책노선을 둘러싸고불화를 빚어온 PLO산하과타단체의 强·穩派게릴라들은 4일 東部 레바논에서 야포·기관총등을 동원, 전투를 벌여 최소 4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했다. PLO强·穩派가 전투를 벌인데 따라 소련·사우디 및 알제리는 5일 PLO의 內紛을 수습하기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레바논의 소리방송은 아라파트에 반기를 든 과타단체지도자 아부·무사 추종자들이 4일하오 베카계곡의 古都 바알베크 근교에 자리잡은 아라파트 지지파게릴라진지들을 각종기관총과 야포로 공격, 충돌이 벌어졌다고말했다.

이 超警戒태세 突入

駐레바논軍 侵攻한돌 맞아

【예루살렘聯合=聯合】레바논주둔 이스라엘軍은 6일 레바논침공 1주년을 맞아 예상되고 있는 게릴라들의 공격에 대비, 초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이스라엘의 한 군사소식통은 5일밤 『우리는 항상 경계태세를 게을리하지 않고있으나 레바논 침공1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당연히 보안을 더욱 강화할수밖에 없었다』고말했다.

그간 이스라엘정부는 게릴라들과의 충돌로 인한 사상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방적으로라도 레바논最戰線진지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왔으며 특히 야당인 노동당과 일부 각료들은 최근 마무리된 이스라엘-레바논撤軍協定 시행을 기다릴것 없이 레바논주둔군의 일부 혹은 전면철수를 주장해왔다.

리비아 原子彈보유

【리딩(美펜실베이니아州)AP=聯合】리비아는 원자탄 5개를 보유하고있으나 믿을만한 운반체를 갖고있지는 못하다고 미국의 리딩·이글紙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매우 믿을만한』정보소식통을 인용, 리비아가한파키스탄계획에 1억달러이상을 투자한뒤 파키스탄을 통해 이원자탄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核없이도 蘇 침공沮止"

10년간 새武器개발에 3천億弗

나토 在來式 고도武器로 가능

파리 「에어·쇼」 보고서

앞으로 10년동안에 걸쳐 實戰배치될 재래식고도기술무기들로 인해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는 核무기를 사용하지않고도 소련의 유럽전면침공을 막을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될것』이라고 파리에어·쇼에서 발표된 한조사보고서가 6일 밝혔다.

사설기관인 미국우주및 방위분석전망협회가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재래식무기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조사, 종합해서 내놓은 「침략분쇄와 나토의 고도기술혁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오는 1992년까지 약3천2백억달러가 재래식침공분쇄무기개발에 투입될것이라고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들 재래식무기에는 항공기, 헬리콥터, 탱크는 물론 전투의 핵심요소인 신형탄약과 전자장비등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많은 무기들이 현재 생산중에 있고 또 그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스라엘에의해 實戰에서 실험됐다고 말했다.

동협회의 에드워드·네빈저연구실장은 이 보고서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신형무기및 그기술에관한 정보를 종합 공개한 최근의 것으로 믿어진다고말했다.

다음은 네빈저씨가 소개한 새로 개발중인 신형 무기들이다.

▲細裂彈=수백개의 소형폭탄이 발사와함께분산, 탱크를 파괴한다。소형폭탄중 일부는 땅에 떨어져지뢰처럼 터지지 않고있다가 장갑차량이 지나가면 폭발하게할수있다.

▲미니미사일=美製WASP시스템과 유사한 정교한 것으로서 2基가 동시에 탱크1대에향할경우 그중 하나는 방향을 전환, 다른 목표물을 찾아간다.

▲로키트보조폭탄=엄청난 射程과 막강한 관통력을 지니고있다.

▲휴대용對탱크무기=탱크중 가장 重裝의 것이라도 前面장갑판을 관통시킬수 있다.

▲원격조종항공기=戰場감시및 전자통신장비와 기타장비 파괴용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사용해오고 있다.

▲전자정찰장비=각지휘관에게 戰場상황을 언제라도 즉각 알려준다.

▲연료폭탄=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바 없으나 비행기에서 투하되는 이폭탄은 같은 양의 TNT보다 2.5~5배정도 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화염은 네이팜탄보다 더크게 번지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파리=AP】

◇"戰爭이 남긴건 울음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침공 1주년을 맞은 5일 예루살렘의 한 국군묘지에서 레바논전에서 사망한 한군인의 유가족들이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전역에서는 레바논전의 전몰자들을 위한 추념식이 있었다.【예루살렘5日AP聯合=聯合】

곳곳에 災害·衝突사고

印에 酷暑50·臺灣 暴雨22명 死亡

【뉴델리·臺北AP聯合=聯合】지난주말 印度에서는 최고섭씨 45.5도까지 올라가는 酷暑로 50명이 사망하는 한편 히말라야 산간지역의 자무 와 캐시미르 州에서 州議會실시중 反政府폭동이 발생, 수십명이 부상하고 1백50명이 체포됐으며 臺灣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22명이 숨지는등 자연재해및 충돌사고가 여러곳에서 발생했다.

印度 中北部지방에서는 4·5일 양일간 심한더위로 비하르 州에서만 33명이, 그리고 마하라시트라州에서 17명이 숨지고 인근다른주에서도수많은사람들이 熱波로시달렸다고印度의 PTI통신이 보도했다. 이지방 주민들은 폭염을 피해 집안에만 머물렀는데 희생자들은 대부분 高溫을 견딜수없는 영양실조자들과 빈민들이었다.

臺灣은 지난 3일부터 주말에 걸쳐 집중호우가 전역을 강타, 근래들어 최악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악지역주민 22명이 사망하고 1백여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돼있다고 경찰이 5일 밝혔다.

파키스탄 辯護士들 民主회복 斷食투쟁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聯合AP=聯合】파키스탄변호사들이 4일부터 파키스탄의 민주회복을 위한 6일간의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고 법조계소식통들이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4일의 법원개정에 때맞춰 전국여러 도시들에서 변호사협회가 선출한 변호사들이 2인1조씩 24시간의단식에돌입, 9일까지 계속하며 이를위해 변호사협회는 법원구내에 긴급 막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변호사협회 중앙조직위원회는 정치활동지의 해제, 군사정부에의해 기능이 정지된 헌법의 기능회복, 총선거및 6년간에 걸친 계엄의 해제등을 요구하기위해 단식투쟁을 벌이도록 촉구한바 있다.

또한 변호사들은 당국에 의해 권한이 축소된 사법권의 회복과 일반법원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수없는 군법회의의 해체도 요구하고있다.

金正日 中共訪問 中共서 좋은반응

【北京AP=聯合】중공은 북한공산세습왕조에 대한 북경의 첫번째 공식승인이 될지도 모르는 金正日의 중공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5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 소식통들은 북한이 세습체제 기반구축에 혈안이 되어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의후계자지명을 인정받기위해 金正日의 북경방문을 강력히 희망해 왔으며 그동안 몇차례에걸쳐 이문제가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지난달 중공 여객기의 납치사건으로 한국과 중공이 접촉하자 북한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 金正日의 중공방문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물위를 달리는 乘用車가 나왔다。 파오베·콜프社가 최초로 개발한 水上승용차가 3일 오스트리아의 뵈르테르 호수에서 첫선을뵈고있다。【미리아뵈르트 오스트리아 4日UPI聯合=聯合】

海外토픽

마르코스 딸 결혼賀客위해 比국영航空 24편 특별增設

국영 필리핀항공사는 오는11일 필리핀북부 이로코스성에서 화촉을 밝히는 페르디난드·마르코스대통령의 막내딸 이레네양(23)의 결혼식에 초청된 수백명의 하객을 실어나르기위해 24편의 여객기를 특별증설 운항키로했다.

이레네양과 필리핀 유명 재벌출신인 그레고리오·아라네타3세(35)와의 호화판결혼식에는 시장급 이상의 모든정부관리들이 초청됐는데 결혼식은 마르코스대통령의 출생지인 마닐라 북방4백㎞떨어진 이로코스성 사라트마을의 17세기에 지어진 교회에서 거행된다.【AP】

失明경고전단 살포 印尼 개기일식대비

인도네시아 당국은 요즘 항공기들을 동원, 자바주민들이 오는11일 일어날 개기일식을 구경할 경우 닥치게될 실명위험에 대비, 이를 경고하는 전단 2백만장을 자바지역에 공중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전단살포는 자바및 술라웨시섬 지역에걸쳐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이지역주민 약4천6백만명은 11일상오11시 5분(현지시간)에 일어날 개기일식광경을 볼수있을 것이라는 것。【UPI】

美 샌프란시스코市 吸煙구역을 義務化

샌프란시스코市는 미국에서는 최초로 모든 개인및공공사무실내에흡연자와 비흡연자를위한별도의구역을설정토록의무화시켰다。

다이앤·파인스타인 샌프란시스코시장이 3일 서명한 흡연규제법은 또한 사무실내에 비흡연자들이 만족할만한 공간을 확보치못할경우 사무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킬수 있다는것。【AP】

◇"숲속의 美女" ◇英國요크셔州 세필드출신의 길·카우·엔양(18)이 더비셔·피크지방의 한숲속에서 몸매를과시하며 여가를 즐기고있다.【더비셔피크(英國)6日AP聯合=聯合】

社說

보리를 어쩔 것인가

농수산부가 조사한 지난달 15일현재 올해 보리作況추계에따르면 작년보다 10.2%가 늘어난 6백54만6천섬을 수확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같은 보리농사대풍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으나, 大豊보리를 어쩔것인가 하는 걱정도 없지않다.

보리생산량은 지난 79년까지 파종면적 45만정보에 1천40만8천섬에 이르렀었다. 그러던 것이 77, 78, 79 3년간 계속 豊年이들어 쌀생산량이 느는바람에 농산당국은 79년부터 그생산을 독려치않고 자율화시켰던 것이다. 이에따라 보리 파종면적이 29만6천정보로 급격히 줄어 80년 보리생산은 5백24만4천섬에 불과했고 이후 계속해서 보리생산이 減量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農政의短見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秋穀(쌀)의 자급도는 높아진다고 하나 전체식량의 자급도는 떨어지는 狀況下에서 보리생산을 등한히 해왔으니 말이다. 최근 수년간에도 옥수수및 콩등 飼料用 곡물류를 포함한 외국산 농산물수입을 위해 年間 20억달러안팎의 외화를 지출했는데 이래도 좋은지 관계 당국자들은 自省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안다.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인구증가와도 관련하여 세계도처에서 굶는 사람들이 점증하는 사실에 想到할때 食糧安保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보리농사에 더욱 注力해야만 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올해의 보리大豊을 麥類증산의 轉機로 삼았으면 한다.

오늘날 營農도 商業化해야한다는 說이 대두되고있다. 이같은주장은 농산품이 가격이나 그交換條件에있어서 더이상 工産品보다 劣勢에 머물러있게해서는 안된다는 발상에서 우러난것이라고 볼수있다. 따라서 보리증산으로 식량자급달성을 촉진하려면 그實生産費에 적정이윤을얹어주는 價格지지정책을 써야할것이다. 그러자면 종합지수상으로 물가가 몇%올랐으니 보리收買價에도 같은率을 적용하는것같은 단순한 산출방식을 택하려 하지 말아야할것으로 안다. 이점, 정부가 收買價책정에 충분히 배려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주무당국은 풍작으로 그수매대상량이 늘어날것에 대비, 필요한재원마련과 공판장설치등에 만전을기함으로써 농민들이出荷하는 전량을 사들이는데 차질이없도록해야 할것이다. 한편 수매에있어서는 肥料·農藥등의 適正價공급과 생산장려금지급제도등을 폭넓게 활용해줬으면 한다.

보리는 밥만지어먹을수있는 곡식이 아니다. 손쉽게는 빵이나 국수를 만들어 먹을수있고 또 다각도로 가공한다면 영양분이 많은 대용식품이나 음료로도 소비될수 있는것이다.

아무튼 보리는 증산해야하고 많이 먹히도록 해야한다. 식량의 자급달성과 농가경제를 보다 더 기름지게 하기위해서, 보리증산은 요긴한 과제다.

東大門과 地下鐵

서울시가 재작년9월 착공했던 지하철 3·4호 도심구간중, 시공이 유보되어왔던 동대문구간이 4일부터 본공사에 들어갈수 있게되었다.

동대문구간의 착공지연은 문화재관리국이 서울시가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에 대해 동대문의 훼손을 막을수 있는 공법의 제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당국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도움을얻어 안전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본공사착공의 승인을요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7개월간에 이르고, 더하여「동대문의 훼손을 최한으로 줄여야한다」는 유보조건 아래 허가하기에 이른것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국내최고의 과학적인 知見을 빌리고 문화재관리국 또한 유보조항까지 곁들여 공사를 허가하는 일련의 행정적인 경과는 나라의 중보를위하는 당연한 조치라 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위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어떤 건설관계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체계의 정신이 얼마나 존중되었는지는 적이 의문스럽다. 지하철노선을그어놓고 공사를1년이상진행한뒤에야 공사승인을 요청했으니 말이다. 문화재위원회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승인을 강요당한 격이었으리라 짐작도 된다.

비슷한일은 덕수궁담과 大漢門을 옮길때와, 독립문을 옮겨앉힐때에도 보았다. 기정사실을 밀붙여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부득이하게한 것이다.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할수밖에 없다.

바람직하기는 개발계획의 시초부터 문화재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하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문화재보호는 언제나 뒷전에 밀리게 마련이다.

서울시가 만반의 보완대책을 한다니, 지하철공사로 동대문이 무너지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그러나 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언제나 훼손의 위험을 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개발과 문화재보존의 조화는 문화재보존의 우선이란 원칙을 좇는 것뿐이니, 이에 맞게 법과 행정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반달곰 그 뒤

설악산 반달곰 밀렵꾼이 경찰에 자수했다。사건 뒤끝이 조금은 밝다。그러나 사건이 던진 심각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사건이 나자 경찰은 현지의 수사형사 6명과 산림보호직원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었다。반달곰의 죽음을 안타까와 했던 국민들의 관심과 자연보호 의식을 생각해서는 좀 허술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밀렵은 현지에서는「꾼」만의 범죄는 아니다。총포·화공약품의 공급루트가 있고, 밀렵 조수의 수요자가 있다。여러지역에 걸친 廣域組織犯罪나 다름 없다.

그렇다면 수사체계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 첫째는, 山地경찰에 전담반을 상설하여 산림청의 보호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짓고, 都市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범자 리스트를 만든는등 常時的인 감시·수사태세를 갖추는 것이다。수렵인단체를 동원한 補助감시체제도 아쉽다.

다음은 밀렵 조수의 거래를 차단하는 廣域수사다。밀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적어도 市·道警단위의 수사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런 감시·수사체제의 미흡을 증명하고 있다。특히 총포상을 통해서, 불법무기가 거래됐다는 사실은 심각하다。총기관리가 그렇게 엄격한듯 하면서 평소의 감시는 이렇게 소홀하다。사회安寧의 허점을 드러낸 꼴이다.

반달곰 사건은 보다 근원적인 사후대책을 독촉하고 있다。범인 자수와, 곰쓸개의 제값받기로, 사건이 마무리 된줄로 착각말기 바란다.

政局往來

큰收穫거두기를 바바

全斗煥대통령은 공휴일인 6일낮 忠南天原郡에서 모내기작업을 끝내고 농민들과점심을 함께 하며『오늘 내가 심은모가 잘자라 큰 수확을 거두기바란다』고 희망을 피력。

全대통령이 이같은희망을 밝히자 수행중인 鄭太變씨는『대통령께서 심어주셨으니 풍년은고사하고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며『이 논은 평생 팔지 않겠다』고 말해 잠시 웃음이일기도。

全대통령은 이날모자리에서 막걸리를권하자『오늘은 顯忠日이기때문에 사양하겠다』면서『그대신 농사짓는 여러분들이나 많이드시라』며 술을따라주었고 天原郡으로 가던중 상오10시가됐을때는 차를세워 1분동안 묵념을 올리기도했다。

이어 국립種畜場을찾은 全대통령은『種畜場이라는말이 듣기에좋지않으니 종축연구원이나 종축시험소와같은 말로 바꾸는게 좋겠다』면서『종축장도 기업체식으로 운영해 수익이 많을경우엔 이를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돌려주도록 하라』고 말했다.

3府要人 줄지어 參拜

제28회 顯忠日을 맞은 6일 3府要人과 與野간부들은 이른아침부터 銅雀洞국립묘지를 참배、護國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蔡汶植의장등 국회의장단과 常委·特委위원장들은 이날상오 일찍 국립묘지를 찾았고, 兪泰興대법원장과 司法府 간부, 金相浹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들도 상오7시30분께 參拜.

또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 權翊鉉사무총장 鄭石謨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등을 비롯한 당직자·在京의원등 3백여명은 상오7시에,民韓黨의 柳致松총재 李泰九·辛相佑부총재 柳漢烈총장 林鍾基총무등 黨간부 소속의원과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등 당직자들도 거의 같은 시간에 현충탑에 참배하고 獻花분향했다。

時局문제 국회서 濾過

최근의 政局動向을관망해온 民正黨은 문제를 드러내놓고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인 설득방식을택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에따라 民正黨은 앞으로 있을 임시국회에서 時局문제를 공개,한차례 필터링(濾過)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같은 자세변화의 조짐은 지난3일 權翊鉉총장이 市道支部위원장들에게 時局문제들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黨의 입장을 밝힌것을 계기로 엿볼수 있는데,權총장은 모든의원들에게 지구당의 핵심당원들을 대상으로 현안의 진상과함께 의연한 대처방안을 공개적으로 설명,共感帶를 형성토록 시달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지난週末 지역구를 다녀온 金瑢泰대변인은 6일『당원들에게 모든것을 다털어놓았더니모두 수긍하더라』고『公開정책』이 성과있었음을 是認하면서『그러나 정부가 對국민신뢰를 높일수 있는일을 해야할것』이란 주문도 있었다고 소개.

그는 또『그동안 지방에서도 改憲說이 상당히 퍼져있었더라』면서『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時宣적절한 천명으로 지방사람들도 더이상 改憲說을 믿지않고있더라』고 傳言.

"대통령의 時宣적절한 천명으로 이젠 改憲說 안믿어"

安堵속 고민스런표정

지난주말 한고비를넘긴 民韓黨운 안도속에서도『야당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自省的 문제제기속에 고민하는 표정들이 역연。

孫世一의원은『場內정치가 기능을 상실할때 場外정치가 고개를 들게되는것은 어제 오늘의 경험이 아니라』고 전제,『요즈음 場外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할줄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許景九의원은『눈감고아옹하는 식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행할뿐』이라면서『밑바닥의 소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게 부족했다면 이제라도 정상기능을 되찾기위한 각고의 반성이 따라야 한다』고 피력。

한편 民韓黨의 韓光玉 金炳午 柳晙相 洪思德 金台植 吳上鉉 李炯培 孫廷赫 의원등 少壯派들은 6일상오 國立묘지 참배를 마친뒤 시내 모처에서 모임을갖고 임시국회문제등을 논의했는데 이자리에서는 시국수습을위한 많은의견과 처방等이 제시됐다고。

顯忠日각黨서 성명

주요政黨은 6일 제28회 顯忠日을 맞아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民正黨 金瑢泰대변인=우리는 이날을 맞아 주변의 불확실한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안보의식을 한층 공고히하고 국민화합을 기초로 한 안정의 토대위에서 하루빨리 선진조국을 창조하는 것만이 先烈의 遺志를 받드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

▲民韓黨睦堯相대변인=지금 우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하루빨리 수습하지 않으면안될 여러문제를 안고있다.

內外動靜

▲南美페루의 산트로 나리야 테기 치아페上院의장(IPU집행위원)내외를 비롯한 의원단이 5일상오 6시20분 蔡汶植국회의장 초청으로 來韓, 오는 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人事異動

…民權黨… ▲사무총장 金晃中 ▲정책심의회의장 柳京鉉 ▲黨紀위원장 朴大成 ▲훈련원장 姜秉珍 ▲인권옹호위원장 宋基太 ▲안보대책위의장 申斗完 ▲대변인 金洪祚 (6日字)

축

토론토 한국일보 일간지 발행 2주년기념

한국일보 토론토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오며, 더욱 교민을 위해 일하는 신문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제8회 서울관

캬라반 6월 17일~ 25일까지

서울관 830 Bathurst St.

50여종의 토산품 전시판매

티켓·$8.00(9일전체) $4.00(당일)

Korean-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Metropolitan Toronto

토론토한인회 20 MOBILE DR. TORONTO, ON. M4A 1H9

회 장·장순채 부회장·이기훈, 변의섭

☎755-9288

이변… 江陵高 콜드勝

靑龍旗야구 13安打터져 東大門商에 12-4

江陵高가 서울의강호 東大門商高를 12-4、7회콜드게임으로 난타, 금년도 고교야구 최대의 이변을 일으켰다。청룡기중고야구 선수권1회전서 江陵高와 격돌한 東大門商高는 대통령배 서울市예선 우승, 청룡기 예선 3위에 오른 서울의 상위팀。서울팀들의 전력이 아무리 약화됐다하더라도 江陵高가 東大門商을 일방적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제3일전적 (6일·서울운동장)

▲고등부1회전

강릉고	104	031	3	—12
동대문상	000	130	0	—4

▲홈런=金柱一 (3회) 玉完洙 (2점·5회·이상 강릉고) 張仁錫 (3점·러닝·5회·동대문상)

▲중등부2회전

동성중	100	010	0	—2
신일중	010	100	1	—3
군산남중	510	020	2	—10
세광중	006	000	3	—9

◇제2일전적 (5일)

▲고등부2회전

부산고 8-4 성남고

▲동1회전

〈연장11회〉

경남고 11-3 배재고

▲중등부2회전

경상중 10-7 포항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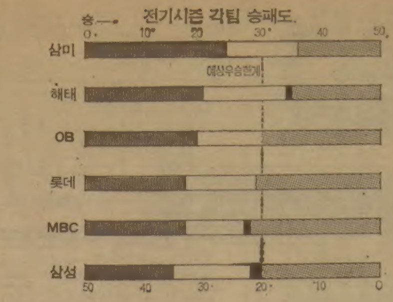
충암중 3-0 충장중

무등중 5-2 춘천중

◆야구元老朴根植씨별세

前경기도야구협회장 야구계원로인 朴根植씨가 6일상오 별세했다。향년 63세。영안실 ⑯2629

前期우승 최대 고비 光州 3연전을 따라



◇삼미·해태전적및 잔여경기

팀	삼미	해태
게임	38	36
승	24	20
무	0	1
패	14	15
팀간승패		
(상 호)	4승3패	3승4패
(O B)	5승2패	4승4패
(롯 데)	7승3패	4승4패
(MBC)	1승5패	6승1패
(삼 성)	7승1패	3승2패1무
잔 여	H4, A8	H8, A6
(상 호)	H0, A3	H3, A0
(O B)	H1, A2	H0, A2
(롯 데)	H0, A0	H1, A1
(MBC)	H3, A1	H3, A0
(삼 성)	H0, A2	H1, A3

※H는=홈경기 A=원정경기

전기시즌 종료17일전。12게임을 남긴 三美·슈퍼스타즈와 14게임을 남긴 해태·타이거즈가 83년프로야구 전기시즌 우승을 위한 막바지 열전에 돌입했다。

두팀간의 승차는 2·5게임。아직 매직·넘버를 들먹일 시기는 아니지만 7·8·9일 光州에서 벌어질 양팀의 3연전은 전기 우승의 향방을 가름할 시즌 최대의 고비다。

82년 최하위 三美는 金振榮감독의 구속충격 속에서도 주말 홈구장서 2승을 추가, 24승14패의 단독선두를 고수했으며, 82년 4위 해태도 20승1무15패를 기록, 끈질기게 三美를 추격하고있다。

풀로야구

光州의 3연전에서 三美가 3연승을 거둘경우 승차는 5·5게임차로벌어지고 三美의 우승은확정적이된다。해태가 3연승할 경우 사태는 돌변, 해태가 0·5게임차로 앞서 종반 역전우승이 가능케된다。

MBC、롯데、삼성에이어 지난해우승팀 OB마저 5일 20패를 넘어섬으로써 4개팀은 사실상 우승권에서 탈락했다。82년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三美는 우승확신 계기
해태는 홈서 逆轉찬스
OB·삼성·MBC·롯데 사실상 탈락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우승한계선은 승률 60%인 30승20패。三美는 10승이 남아있다。三美는 아직 6패의 여유를, 해태는 5패의 여유를 가진 셈이다。

三美는 남은 12게임을 치르며 2게임중 1게임만 승리해나가면 30승에 이르는 유일한 입장, 반면 해태는 남은 14게임을 치르며 3게임중 2게임 이상을 이기지 않으면 곤란하다。

전기시즌의 전체순위가 그러했듯이 해태-三美의 종반쟁패전역시 투수싸움으로 집약된다。三美는 승률79%의 베테랑 張明夫(15승4패1세이브)와 기교파 任昊均(5승7패)를 집중 투입, 단기전에서 더욱 강세가예상된다。강속구의 金勇男(6승3패)、李相潤(8승6패1세이브)와 언더핸드의 朱東植(4승2패3세이브)을 가진 해태는 金勇男의 고장으로 金城漢까지 투수로 돌리고있으나 여전히 마운드가불안、홈런타봉에 역전승의 기대를 걸고있다。【方錫崗기자】

"비기면 안된다" 1분前 결승골

◇밀치기까지 했지만… 5일 (현지시간) 한국-멕시코 경기에서 한국의 盧仁佑(左)를 멕시코팀의 한·무시노가 손으로 밀치고있다。이경기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2-1로 격파했다。【멕시코시티 5日 AP=聯合】

세계靑少年 축구

申連浩헤딩슛… 8강活路 뚫어

盧仁佑동점골 멕시코制壓、호주와 豫選 막판남겨

2-1

【멕시코시티=安奉燦특파원】한국은 경기종료1분전 申連浩의 역전결승골로 홈팀멕시코를 누르고 8강진출에 한발다가섰다。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은 6일 새벽3시 (한국시간)이곳아즈테카경기장에서열린 제4회세계청소년 축구대회 A조예선 두번째경기서 盧仁佑의 동점골 (전반29분) 과 申連浩의 극적인역전결승골을묶어 멕시코를 2-1로 제압하고 1승1패를기록, 9일濠洲를이기면 8강진출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그러나 비길경우는 8강진출을 낙관할수없다。

濠洲는 이날 강호 스코틀랜드에 2-1로 승리, 1승1무로 A조선두를 달리고있다。

한국은 경기초반 짧은패스로 속공을펼친 멕시코에 시달리다가 전반10분 FW 레이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29분 HB盧仁佑가 동점골을 만들었다。페널티·에리어 좌측서 FW 金鍾夫의 센터링을 받는순간 멕시코 GK 나바로가 앞으로 뛰어나왔고 이때를 놓치지않고 왼발땅볼로 강슛, 볼은 수비사이를 빠져 골네트를 흔들어 놓았다。

이때부터 양팀의 공방전은 거세졌다。전반42분 멕시코의 베르날이 페널티·에리어 우측서 날린 롱슛이 골포스트를 맞고 튀어나갔다。한국은 전반슈팅서 7-12, 프리킥 1·5로 열세였다。

두팀의 공방은 후반에접어들자 더욱치열해졌다。7분 멕시코의 베르날이 한국문전서 슛, GK 李文榮이 손으로 볼을쳐내 선방했고 9분에는 金鍾夫가멕시코 문전까지 단독대시, 슛을 하려다 미끄러져 득점기회를 놓쳤다。38분에는 申連浩가 문전서 헤딩슛을 했으나 볼이 골포스트를맞고 나왔다。

멕시코도 39분 베르날이 골문 앞에서 헤딩슛을 했는데 볼이 땅에맞고 튀어 크로스바를 넘어갔다。

전광판시계가 1분을 남겨놓자 관중들은 경기가 1-1로 비길것으로예상,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갑자기 함성이 터졌다。한국은 마지막 공격을 시도, 姜才淳이 오른쪽을 파고 들어가 페널티·에리어 우측의 李太炯에 패스했다。이볼은 바로 골 에리어 앞에 있던 申連浩에게 이어졌다。

◇제4일전적

▲예선A조

한 국 2 (1-1, 1-0) 1 멕시코

호 주 2-1 스코틀랜드

▲B조

미국 1-0 아이보리코스트

◇제3일전적 (5일)

▲C조

아르헨티나 5-0 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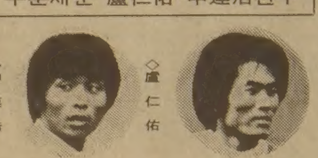
체코 4-0 오스트리아

▲D조〈몬테레이〉

나이지리아 1-0 소련

브라질 1-1 네덜란드

수훈세운 盧仁佑·申連浩선수



◇盧仁佑 ◇申連浩

麗水 같은마을서 자라나서 大學도 같이뛴 운명의콤비

멕시코와의 경기서 수훈골을 올린 盧仁佑 (20) 와 申連浩 (19) 는 錦湖高서 이름을 날렸던 콤비로 둘다 高麗大에 진학, 선수생활을 하고있다。

두선수 모두 국민학교 5학년때부터 축구를 시작。

盧는 게임운영이 노련하고 비교적 슛이 정확한데다가 헤딩과 롱패스가 일품。申은 개인기가 좋고 게임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재치있는 선수。스피드서는 盧가 1백m12초9, 申이 13초로 盧가 약간앞서 있다。미래의 국가대표로 기대를 모으고있는 공격수 들이다。전남여수 같은마을에서 성장했다。

관중 멕시코선수에 돌던지며 야유

매스컴도 분노표시

◆…멕시코가 한국에 패하자 멕시코 팬들과 매스컴은 크게 충격, 일제히분노를표시했다。

경기가 끝난후 벨라르드 감독에게 달려간 멕시코기자들은『86년 월드컵대회를 유치해 놓은 멕시코로서는 지금부터 청소년대표들을 잘다져 놓아야 할텐데어떻게된일이냐』며마치 실패한듯패전책임을추궁。

일부 흥분한 관중들은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는멕시코선수단 버스에 몰려가 음료수가든 컵이나 돌을던지며야유, 경찰이 저지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한국선수단에게는 『꼬레! 꼬레!』를 합창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축하를보냈고 선수단이10여년떨어진 대사관저로 가는동안 연도의 시민들은 손을 흔들어 격려했다。

濠洲도 2분전 득점

◆…『막판을 조심하라』

한국이 경기종료 1분전 결승골을 올린 6일 濠洲도 경기종료2분전에 우승후보인 스코틀랜드에 결승점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美國 역시 아이보리코스트와의 경기서 종료10분전에 결승1골을 기록, 가까스로 승리했다。

선수교체가 勝因

▲朴鍾煥한국팀감독의말=오늘의 승리는 선수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한결과다。후반들어공격진들이 힘이 빠져 수비전환이 늦었다。

선수2명을 교체한 것이 성공했다。개인기는 멕시코선수가 앞서 있으나 우리는 팀전술과 정신력이우세했다。濠洲와의 경기는 對멕시코전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숏패스위주로 집중공격을가한다면濠洲를이겨8강진출목표를달성할수있다。

선수들 승부욕없어

▲멕시코 벨라르드감독의말=오늘의 패인은 나의 작전미스다。선수들의 승부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모두 나의잘못이다。

伊、첫 해트트릭

대통령盃축구 印尼3-0격파

한국 프로축구 油公은뉴질랜드를 제압, 한국 대표팀과 함께 순조로운 스타트를했다。5일 서울 운동장서 벌어진 제13회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이틀째 B조경기에서 油公은 전반41분 金鑄世의 헤딩슛,후반45초만에 金剛男의 기습골로 뉴질랜드를 2-0으로 제압했다。

許丁茂가 속해있는 아인티호벤은 후반24분 FW 레센의 강슛을 가나 GK가 쳐내자 받치고 있던 FW콜호프가 다시차넣어가나를1-0으로격파했다。

이탈리아는 가를리니가 이대회 첫 해트트릭 (전반5분、후반13분、23분)을 기록하고 인도네시아를 3-0으로 완파, 1승1패를 올렸다。

◇제3일 전적

▲A조

미 국 1 (0-1, 1-0) 1 나이지리아 (2무) (2무)

이탈리아 3 (2-1, 1-0) 0 인도네시아 (1승1패) (1무1패)

◇제2일전적

▲B조

아인트벤 1 (1-0, 0-0) 0 가나 (1승) (1패)

유 공 2 (1-0, 1-0) 0 뉴질랜드 (1승) (1패)

佛 노아優勝

「佛」오픈테니스 빌란데르 꺾어

【파리=安炳璨특파원】프랑스의 흑인스타 야니크·노아 (23) 가 프랑스오픈테니스 남자단식 결승전서 대회2연패를 노리던 지난해 우승자 마츠·빌란데르 (18·스웨덴)를 격파、1946년 마르셀·베르나이후 37년만에 프랑스에 롱랑·가로컵을 선사했다。카메룬태생인 노아는 6일 클레이코트에서 벌어진 결승전서 2시간24분만에 빌란데르를 3-0(6-2、7-5、7-6)으로 제압했다。노아의 승리는 또한 5년동안 스웨덴이 독점했던 왕자를 빼앗았다는 큰의미를 갖고있다。

張吉山

第一章 彌勒 黃晳暎 作 〈1760〉

『해서 사람들에게도 알렸소?』

『예, 안협산은 향도가려 산으로 전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선 아무리 빨리 모아도 인근의 말사까지 쳐서 백여명의 승도에 지나지 않소。이제 바삐 금강산으로 알리러면 오며 가며 닷새는 걸릴터인즉 그때까지 거병을 미룰수 밖에 없겠소』

전성달이 말하였다。

『십오일에 먼저 향도들을 이끌 사람들이 입경하고 사흘뒤인 십팔일에 거사를 한다는것입니다。더 늦어진다면 이번일은 실패입니다』

『운부스님과 남한산성의 일여와 가평 현등사의 풍열 스님께서 어찌 결정할지는 모르나 승병을 일단 모아 보리다』

시흥은 벌써 김석남 송계망과 더불어 대전리로 떠나려고 행장을 꾸리고 있었다。

『날짜가 변경되었어。내일 입경하고 열여드레까지 기다렸다가 거병을 할모양일세』

정명이 말하자 이시흥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잖아도 내가 지금 이길로 양주에 나가려는 참일세。장포와 동촌사람들이 떼를 지어 활방을 찾아간다고 어제 대전리로 몰려갔다네。그중에는 벌써 실망하고돌아온 사람들도 많아。우리삼촌두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전리에 갔다가 하룻밤 노숙하고 아무일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네。이대로 두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거야』

이시흥은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였다。이정명이 말하였다。

『까짓 걱정말게。오늘이라두 장정을동원하여 대전리에 모이도록하지。일단 사람이 많이모이면 서로 뱃보도 늘고 자연히 도모할결심도 생기게 되는게야。한 이삼일 먹일양식이 없겠는가』

『양식은 각자 준비해도 되고 안되면 양주목의 창고를 열면 되겠지』

김석남도 말하였다。그들은 함께 사람을모으려고 둘씩 짝을지었으니 시흥은 송계망과 함께였고 정명은 김석남과 같이 나섰다。이시흥은 행상 주대천 (朱大天) 조한욱 (曺漢郁) 조무인 (曺武仁) 등과 더불어 사람을 불러모았고, 그들은 삼번 입역했던자들이라 군장과 군복을챙겨서 나섰으니 거의 삼십여명이 넘었다。이시흥은 군복이 없어 초군 (哨軍) 우광남 (禹光男) 에게서 빌었다。도중에 관노 검송 (儉松) 이 시흥을 만나자 걱정하여 말하였다。

『이거 이렇게 군장을갖추어 나섰다가 실패하면 어쩌우?』

『실패할 리가 없네。해서와 강원양도의 군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쳐들어 올거야』

『군량은 어찌할까요。지금·세때 먹을 양곡두 없읍니다』

『걱정말게。가서 모두에게 이르게나。양주목에서 쌀을 나누어 줄테니까』

그러나 검송은 시흥의 일행에 끼어들지 않고서 삭녕 좌수 윤여형(尹汝衡)에게 가서 가만히 일렀다。윤여형은 곧 면주인이며생원을 자처하는 현복명 (玄復明) 에게 찾아가 천변대우 (天變大雨) 의 소문을 확인하였다。복명이 말하였다。

땅끝에서 오다

시간과 서간사이 ⑧ 金成一 作 〈76〉

일준호가 사무실을 나온 것은 일곱시가 지나서였다。물론 본사 직원 세명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그들은 지하실의 경양식집 「여의도」에서 저녁을 먹었다。마치 시간과 시간 사이의 틈새에서 저녁을 먹는 형국이었다。직원중에 마침 리비아에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그나라 관습이라든가 풍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웨이터가 다가왔다。

『…………?』

『손님 중에 혹시…… 임준호씨라고 계신니까?』

준호는 의아해하며 웨이터를 바라보았다。

『어떤분이 잠깐 뵙자고 하시는데요』

『나를?』

『네, 카운터의 전갈입니다』

네 사람의 일행은 일시에 긴장하고있었다。

준호는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다。아까 점심 때 보았던 그 아가씨가 무언가 쓰고 있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준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카운터쪽으로 다가갔다。직원 하나가 그를 엄호하기 위해서 따라 일어서고 있었다。준호는 이윽고 카운터 앞에 도달했다。

『저…… 내가 임 준호 입니다만……』

카운터의 아가씨는 고개를 들더니, 그를 보고 아는체를 했다。

『아까 점심시간에 오셨던 분이군요。저……』

여자는 사방을 돌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이상한군요。금방 어떤분이 여기와서 임 준호씨란 분을 찾았었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읍니까?』

『글쎄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키가 꽤 크신 분이었는데……』

『키가요?』

이 역시 또 우연의 일치인가。지금 이 시간에 경양식 집까지 따라와서 임 준호에게 면회를 요청한 키 큰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인가。준호는 얼른 문쪽으로 뛰어가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눈에 뜨일만한 키 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어쩐지 그들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두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김포 공항으로 향하였다。여권 담당의 미스터 윤은 어김 없이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시계는 아직 여덟시 반이 채 되지 않고 있었다。미스터 윤은 두툼한 서류봉투 속에서 준호의 여권과 출장비와 비행기표를 꺼내어서 건네었다。

『말씀 드린대로 21시20분발KE901편입니다。앵커리지에서 한시간 10분동안 원 스톱 하고 파리에 1월7일 아침 08시20분 도착입니다。코네션은 오후 15시 정각 출발의 프렌치·에어라인 UT 407편입니다。트리폴리 도착은 19시25분입니다』

『……08시 20분에서 15시까지……』

파리에서 여섯시간 40분의 공백이 있었다。시간과 시간 사이의 틈새기가 보이고 있었다。미스터 윤의 주의사항이 계속되었다。

『리비아에서는 외화신고 카드에 반드시 사인을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외화 단속이 매우 엄하니까요』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마초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하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RES : 252-7491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Auto Service(Tune-Up, Brake, Engine)
6 Moselle Dr. 전화 749-9749 Mr.박(출장수리)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퍼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차이나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전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한식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스토아에서 일할 여자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8-8834(커피숍에서 일해본분 우대)

웨이트레스 구함. 한국관
전화 : 536--0290.

학교 옆에 있는 적은 가게 운영하실분.
지하실 2 Bedrooms 입주가능.
전화 : 261-7980

간단한 가사일과 아기 봐주실 분 구함.
Rexdale 지역.
전화 : 741-9443(오후7시이후)

도안사 구함.
전화 : 789-7351

경험있는 Cashier와 섬부마린하실 여자분 구함.
(High Park & Bloor 지역)
전화 : 762-6578

입주하셔서 할머니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7-9911(오후6시 부터 8시사이)

유경험자 Store Helper 구함.
Scarboro 지역 거주하시는 분
전화 : 439-9531

한국요리사와 부엌헬퍼 급구.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음식점 정원 전화 : 1-354-3800, Mr. 리.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입주해서 아기 봐 주실 분 구함.(브램톤지역)
(2살). 월요일~토요일 저녁까지.
전화 : 456-0567, 451-2560, 453-0643

남•녀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일 지불함. 좋은 농장.
전화 : 461-799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천마리당 20불)
지렁이 삽니다. (가져오시면 천마리당 22불 드립니다.)
전화 : 763-4057

출퇴근하시면서 아기 봐주실분 구함.
전화 : 537-5164.

개인 전문 교사로 영어, 수학 가르침.
(어린이, 어른) 싼 수업료.
전화 : 636-5202 Janyce

지렁이 잡을 분 구합니다.
남•녀 불문. 매일 지불함.
전화 : 656-5232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매 매

터숍 매매. Courtesy Tobacco & Gift. 아스킹 : $3만(Off 가능)
콘도미니움빌딩 지하에 있으며 콘비니언스 스토어로 바꿀 수 있음. 주소 : 110 Bloor St. W.(Low Concose). 전화 : 362-0861.

(1) 커피숍 주5일영업. 주매상 $4,000.
(2) 버거데리 Fast Food. 주6일. 주매상 $4,200.
전화 : 977-0578, K. SEE. Realty Inc.

도넛숍 팝니다. Bowmanville
총매상 : $18만~20만/year. 최상의 장소.
좋은 이익. 전화 : 416-433-1451, Mr. Cardenas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500. 렌트 $500. 리스 5년+5년옵숀
주소 : 357 Coxwell Ave.

몰안에 있는 Hot Dog Stand 팝니다.
좋은 장소.
전화 : 826-5942(오후2시~4시), 622-7763(오후5시이후)

버라이어티스토어 급매(2층 APT건물포함). 월이익금 $4,300이상. 아스킹$11만9천 + Stock. $3만9천 Cash 잔금은 Mortgage를 줄수 있음. 주소 : 287 Locke St. South, Hamilton(Locke & Stanley)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직접내방 요망)
가정형편상 급매

Store 팝니다.
주매상 $5,000내외 + Lottario
리스 3년반, 옵션 5년
살림집까지 합쳐서 렌트 $1,100
1093 Woodbine Ave. (직접 내방요망)

350 Bed Institution
Owner Must Sell. $399,000
Located 2 Hours West of Metro on 6 1/2 Acres with Main Building & Two 160 Bed Dormers, Complete Full Kitchen, Dining Rm., Seats 200, Full Recreational Facilities, 2 Special Care Ward, Parking for 300 Cars.
Swimming Pool, All Alarm Systems + Many More Extras, All for $399,000, Perfect for Camp, Rest Home or Any Institutional Use.
CALL MR. MADSEN For Full Details.
Re-Max, Richmond Hill Realty Inc.
Realtor, Tel : (416)883-4922

셋압한지 3개월 된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전망 좋음. 현재 주매상 $3,000 개런티.
렌트 $500(5년) + $590(5년).
지하실 포함. 아스킹 : $2만 + 스탁(All Cash원함)
1221 Danforth Ave.

Private : Christie-Barton. 단단한 벽돌집 4-plex.
수입 $12,600 + Owner's 아파트와 차고있음.
아스킹 : $12만9천. 주인직접거래. 전화 : 921-6526.

가게 팝니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 832-1573

전망좋은 사진가게 판매
증명사진, 액자, 인화, 현상, 여권사진
전화 : 335-6601(버링톤)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Bloor St.W. & E. of Christie St.)
주매상 : $7,500. 장소좋은 한인지역.
전화 : 977-0578(Mr. Fred or Jean) K.SEE REAL ESTATE INC.

스토어와 하우스-코너 버라이어티. 스토어 벽돌 디태취.
아파트 입구별도. 아스킹 : $124,000.
전화 : 596-8170, Mr. Edmund Tong Trustwell Realty Inc.

터숍급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드라이크리닝(Pick Up) Store 급매.
Pikerling지역. 주매상 $1,400.
Rainbow Realty. 전화 : 752-7575

Fast Food Store Salada Sandwich & Soup
$3,500 Weekly(Bloor & Yonge).
Rainbow Realty. Mr.Sotos 752-7575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6,000.
리스(5년 + 5년). Asking : $61,000.
전화 : 1-528-3986, 해밀톤 Mr. 리.

자동차 팝니다. Sale Price $5,000.
닷산 200 SX 80년도형.
전화 : 536-8666

House for sale. Thornhill Area. 1,800 Sq. Ft.
4 Bedrms. Fire Place. Central Air Condition.
Many Extra. Tel : 889-5320

2 Convenient Stores for Sale.
Downtown — 1. Whitby — 1
전화 : 282-5498

Mall 안에 있는 과일가게 팝니다.
연매상 35만불. 문의전화는 284-3031.
(토요일 오후6시 이후, 또는 일요일 전화요망)

버라이어티 스토어 팝니다 (건물포함)
주매상 : $5천 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 3 베드룸. 전화 : 781-7080.

코인 런드리 팝니다.
1357 Danforth Rd.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밝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416)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구 혼

1957년생임. 신랑감을 구함(단 시민권자)
현재 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음.
전화 : 947-9383 (Mrs. 김. 오후6시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 세놓음.
1 베드룸과 2 베드룸. Eglinton & Weston지역.
전화 : 243-0233.

One Bachelor 지하실 세놓음.
전화 : 762-7958 Mrs. 김.
(아침 8시-10시, 저녁 4시반-10시까지 전화요망)

실 내 설 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755-0308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FLOWER SHOP. 도넛Shop. 사무실 디자인 등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 [illegible])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페인트(파라, 벤자민무어등)와 벽지취급. 페인트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 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24-1967 ★이헌영 (R)686-0207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토론토의화제

최 고
인 기

D.Y 염가봉사

D.Y 식품 회사

교민에게 봉사하는
D.Y 대 스페샬

□D.Y가주미 50LB(밥맛이 구수한 장미쌀)
□선학쌀 $11.95(50불이상 사실 경우)

□배추 1파운드 39전(쫑이없고 아주좋음)
1박 스 12불(50파운드이상)

□무우 1파운드 39전
1자 루 12불

□계란 1다존 1.19 (LARGE SIZE)

□감자 1자루(5파운드)99전

□오랜지 1박스(88개)$8.99

□물오징어 특대 1파운드 89전
1박스당$12.50

□갈비 1파운드$1.49(최상품)

※김치는 공장값보다
싸게팝니다 □큰 병 $10.95
□중간병 $ 5.50

새로 한국에서 수입한 비데오・테입이 준비됐읍니다.
염가로 봉사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D.Y상표를 한번 맛보신 분은
영원히 D.Y제품을 잊지 못할것입니다.

◎D.Y 우동국수・막국수・소면
◎D.Y 참기름(구수한 순 한국산)
◎D.Y 오징어 채
◎D.Y 북어포
◎D.Y 당면(쫄깃쫄깃한 그 맛)
◎D.Y 김치용 고추가루
(단 한번에 그 진가를 아십니다)
◎D.Y 고추장용 고추가루
(색깔도 이쁘고 맛이 최고야
◎D.Y 엿기름
◎D.Y 메주가루(냄새가 제거된 것임)
◎D.Y 짜장・고추장・된장
◎D.Y 울산미역

※새로나온 품목

⊙D.Y 물냉면
⊙D.Y 콘티찐빵・쑥빵
⊙D.Y 궁중간장
⊙D.Y 콩간장
⊙D.Y 조개젖
⊙D.Y 볶음짜장
⊙D.Y 덴뿌라・오뎅
⊙D.Y 창난젖

품질과
신용을 자랑하는

※D.Y를 확인하십시요.

판매처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인식품	622-2643	15 WEST DEANE PK.DR.
서울식품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울식품 서부	243-9544	1391 WESTON RD.

D.Y Import Co.